

영국 디자인 아카이브 Design Archives in UK

PP.032-091

인터뷰, 원고 작성

안병학(홍익대학교 부교수)
데쉬나 메타(런던 UAL 부교수)
허민재(홍익대학교 조교수)

Interview and Writing

Ahn Byunghak (Associate Professor, Hongik University)
Deshna Mehta (Associate Lecturer,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Huh Minjae (Assistant Professor, Hongik University)

1.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
2. 빅토리아 앤 알버트(V&A) 박물관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3. 런던 디자인 박물관 아카이브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투고일 2022년 7월 8일
심사일 2022년 7월 11 -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1일

Received Date 8 July 2022
Reviewed Date 11-25 July 2022
Accepted Date 1 August 2022

* 이 원고는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안상수 외, 문화체육관광부, 2012의 일부를 재구성 했음.

요약

영국 디자인 속의 영국다움을 구성하는 근본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미니(Mini)'는 독일 소유 자동차 브랜드이지만, 사람들 마음 속에 여전히 영국의 문화 유산이라는 감정이 공유되고 있다.

고급 자동차 브랜드 벤틀리(Bentley) 역시 1998년 폭스바겐의 자회사가 되었고, 2002년 폭스바겐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로 합병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을 영국의 럭셔리 브랜드로 이해하고 있다. 애플(Apple)의 디자이너 아이브(Jonathan Ive)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았지만, 미국에서 아이폰과 맥북에 혁신적으로 기여했다. 이렇듯 많은 우수한 디자이너와 건축가가 영국에 기반을 두었지만, 이들 모두가 영국 태생이기보다는 영국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영국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공유하는 일정한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영국 현대 디자인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세계 속 영국디자인의 영향력을 지켜간다. 영국에서 아카이브는 국가적 네트워크 속에서 역사를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가, 지역, 그리고 가족사까지도 포괄하는 영국의 이 넓고 다양한 정보의 보물 상자들은 학제를 넘나드는 다양한 교육, 연구, 출판의 자료이기도 하다. 영국인의 인식 속에 아카이브는 '지속적인 수집 활동으로 자신의 기억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 '원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보물 창고가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영국 디자인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에 대한 대중의 깊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 지원, 각종 민간 기금과 복권 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 각 박물관과 대학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예술과 디자인이 기업의 목표를 돕고 그 자체로 경제적 자원이 되도록 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Abstract

What is the root of Britishness in British design? The Mini, for instance, is a German-owned car brand, but people still share the emo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British culture from the product. Even though Bentley has been a subsidiary of the Volkswagen Group since 1998 and consolidated under VW's premium brand Audi in 2022, it is still emotionally understood by people as a British luxury car brand. Also, an Apple designer, Jonathan Ive, was born and educated in the UK but was an innovative designer of iPhone and MacBook in the US. No matter who the prominent designers and architects work for or where they liv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all culturally belonged to British or they chose Britain. Of course, indeed,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the characteristics shared by them. However, despite the aspect reflected in British design, they maintain their influence on the rest of the world. Many kinds of archives in Britain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eserving history within a national network. Covering national or regional history, and even family history, this vast treasure chest of information on Britain became a resource for cross-disciplinary education, research, and publications. It is because an archive inside the perception of the British people is taking root as a place that acts as a role of one's memory manager with diverse collections and a free space accessible to anyone who believes that archives help them make decisions that might affect their lives. Within the policy resources and financial support, Design Archives in the UK i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including many kinds of private funds. In addition to that, with the strength of dedication devoted by each museum and university, the British Design Archive plays a critical role in design industry, helping it to grow as plentiful economic resources.

1.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

1.1. 소개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The University of Brighton Design Archives)는 1994년 디자인협회(Design Council)의 아카이브가 브라이튼 대학교로 옮겨지면서 시작되었다. 브라이튼 대학교는 디자인 역사 연구의 중심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1998년부터 브라이튼 대학교 예술대학의 리서치 센터(Centre for Research & Development) 감독을 맡고 있던 조나단 우드햄(Jonathan Woodham) 교수의 노력으로 디자인협회의 아카이브를 브라이튼 대학교로 유치할 수 있었다. 우드햄은 지난 30년 넘게 디자인 사학계의 발전을 이끈 독보적 존재이다. 그는 디자인협회의 아카이브가 가진 방대한 교육적 가치를 알아보았고, 디자인 아카이브가 젊은 디자이너들을 훈련시키는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분리된 기관이 아닌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믿음은 많은 기부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대내외 관련 인물, 단체와의 관계에 힘입어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는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국내외 개인 및 디자인 단체 아카이브의 전형으로 성장했다.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는 정부의 고등교육부(HE Sector)가 관장하는 범위에서 20세기 영국 내외에 존재하는 디자인에 중점을 둔 가장 큰 아카이브라고 평가받는다. 산업, 시각, 전시 디자인과 그들 사이의 서로 연결되는 지점까지 포괄적 수장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장품들은 영국 내외 디자인 기관들의 진화하는 의제들부터 개인 실무 디자이너들의 자세한 스튜디오 활동까지 폭넓은 범위의 디자인 활동을 재현한다. 홍보 관련 디자인 작업, 기관에 대한 자료부터 개인 디자이너의 작업과 그들의 완성작, 그리고 국내외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맥락 안에서 이것들이 미친 영향까지 포함된다.

브라이튼 대학교는 연구 가능성을 강화해 줄 수집품을 우선시하는 신규자료 정책을 가져왔다. 브라이튼 대학교 아카이브의 21개(2022 현재)의 아카이브들은 시각 자료와 조직 구조의 기록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중요한 자원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 전쟁 후 디자인 영역의 중요 인물로 평가받던 헨리온(FHK Henrion, 1914-1990), 제임스 가드너(James Gardner, 1907-1995), 윌리 드 모조(Willy de Mojo, 1917-1993)와 같은 개인 디자이너 관련 서류들이 그 예이다. 전시, 텔레비전 프로덕션 디자이너인 나타샤 크롤(Natasha Kroll, 1912-2004), 왕립회를 위한 사고 예방 포스터로 잘 알려진 그래픽 디자이너 로스홀츠(Hans Arnold Rothholz, 1919-2000), 예술가 바바라 존스(Barbara Jones, 1912-1978) 또한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례들이다.

1.2. 개요

브라이튼 대학교는 런던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남쪽에 위치하며, 디자인 아카이브는 브라이튼 대학교의 미술대학 패션디자인과, 섬유디자인과, 미술원, 미술디자인사학과, 인문학과, 사진영상음향과, 공연예술과, 3D디자인과, 시각정보디자인과, 사우스 이스트 영상아카이브(Screen Archive South East), 리서치 센터(Centre for Research and



[그림 1] 그랜드 퍼레이드 빌딩(1877, 사진 출처: 브라이튼 대학교 아카이브 제공)



[그림 2] 그랜드 퍼레이드 빌딩(2012, 사진 출처: 브라이튼 대학교 아카이브 제공)

Development) 등과 함께 그랜드 퍼레이드(Grand Parade) 빌딩 안에 자리 잡고 있다.

1.3. 설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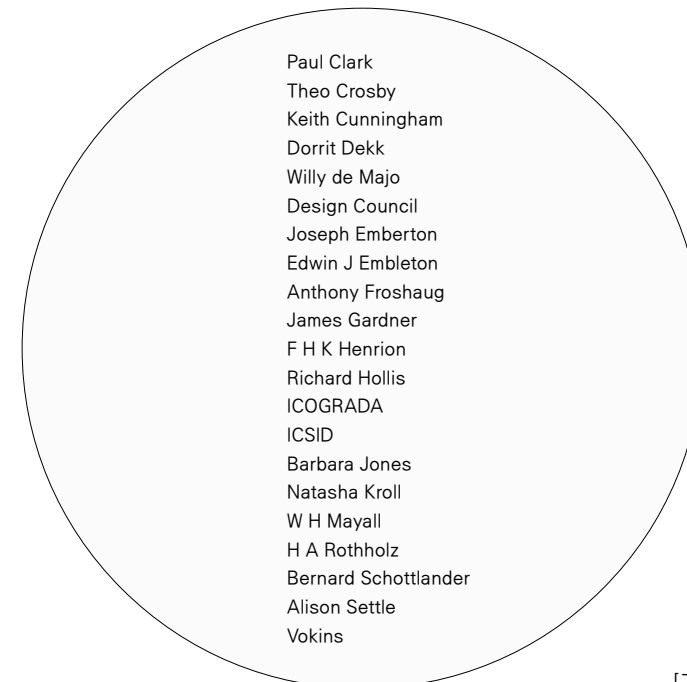
- 1859-1994년 브라이튼 대학교 예술대학의 전신에 해당하는 미술대학(School of Art)은 빅토리안 시대에 뿌리를 두고 1859년 설립되어 오랜 역사 동안 사회, 문화, 산업의 측면에서 창의성 교육 기관으로서 크게 공헌한 역사를 자랑한다. 디자인 아카이브가 소속되어 있는 브라이튼 대학교 연구센터는 20세기 국제 디자인 기관들과 영국디자인에 중점을 둔 국제적으로 중요한 학술 기관으로서 디자인 연구 분야에 높은 명성을 쌓아 왔다.
- 1994년 브라이튼 예술대학의 역사적 배경과 조나단 우드햄(Jonathan Woodham) 교수의 명망과 노력에 힘입어 디자인협회가 보유하고 있던 디자인 아카이브가 브라이튼 대학교 예술대학으로 유치되기에 이른다. 초기 디자인협회로부터 아카이브를 유치, 이관받으면서 디자인협회와 관련된 여러 다른 기관과 연결 지점을 갖는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되었다. 수장을 희망하는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기관이 그들의 작품 또는 자료를 대학에 기부 또는 대여하고 디자인 아카이브는 이를 연구에 응용하면서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1998년 예술대학의 연구 활동을 디자인 아카이브와 더불어 배가할 목적으로 리서치 센터(Centre for Research & Development)가 설립되고 조나단 우드햄 교수가 관리자로 임명된다.
- 2003년 이코그라다(ICOGRADA: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Graphic Design Associations)의 아카이브를 유치해 이 단체의 출판물, 각종 행사 기록, 역사 관련 자료, 회계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 2007년 익시드(ICSID: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의 아카이브를 유치했다.
- 2009년 디자인 아카이브가 HEFCE(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로부터 총 £180,000의 후원금을 수여받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또한 브라이튼 대학교 예술대학이 2009년 1월로 설립 1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3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 조나단 우드햄(Jonathan Woodham) 교수와 예술대학의 필립파 라이온(Pilippa Lyon) 박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1859년 이래 브라이튼의 예술과 디자인(Art and Design at Brighton 1859-)'라는 400쪽에 달하는 역사책 발간, 둘째, 1859년부터 현재까지의 학생과 교수의 200여 작품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전시, 마지막으로 '21세기를 위한 예술디자인 교육'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가 그것이었다.

1.4. 아카이브 시설

1.4.1. 수장 시설

새로운 디자인 아카이브가 신설되면 확보된 자료를 분류하여 아카이브 허브(Archive Hub)에 가장 먼저 등록한다. 이에 추가 세부 분류 및 정리 과정을 거쳐 나중에 상세 수준의 설명을 더한다. 대부분의 자료는 종이 문서 형태로 입수되기 때문에 디지털 변환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디지털 자료를 오랜 기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책임감이 필요한데, 디자인 아카이브 담당자와 학교 측 사이에 형성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디자인 아카이브는 그랜드 퍼레이드 건물 지하에 수장고를 보유하고, 1994년 디자인협회가 보유하던 디자인 아카이브를 유치한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적절한 수장고를 추가 구비하고 있다.

- 주 수장고 주 수장고에는 좁은 공간에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인 이동식 저장고, 포스터를 보관하기 위한 서랍식 보관고, 산성 보호 상자, 일부 실물 디자인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 보조 수장고 보조 수장고는 2011년에 습도 유지 시스템을 구비했고, 1950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디자인협회 자료들이 이동식 저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여러 수집품이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다.



[그림 3] 브라이튼 대학교 내 아카이브



[그림 4] 주 수장고(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그림 5] 보조 수장고(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1.4.2. 일반 시설

디자인 아카이브는 대여받은 수집물에 대한 소유권은 갖지 않고 관리 권한만 갖는다. 디자인 아카이브 안에는 디자인협회 도서관(Design Council Library), 헨리온 도서관(The Henrion Library), 이코그라다 도서관(ICOGRADA Library) 등 총 3개의 도서관을 아카이브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다.

아카이브	사우스 이스트 영상아카이브(Screen Archive South East) 영국의 남동지역의 공공 영상아카이브이다. 1992년에 설립된 영화와 비디오 아카이브로, 이 지역의 대표 영상아카이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시설	연구 강사, 방문 강사, 교수의 장기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공간.
프레젠테이션룸	이 공간은 진행 중인 연구 작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연구 관련 회의를 수용할 수 있다.
회의실	브라이튼 대학교 연구 센터 CRD는 교수 연구 관련 회의 및 행사에 이용하는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컴퓨터실	

1.5. 수집 과정과 대상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는 지정학적 위치와 관계없이 국내외 전반을 통틀어 디자인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브라이튼이라는 도시와 지역 특성을 아카이브에 담아내는 일 또한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디자인 아카이브 자체가 특정 도시 유산에 속한다거나 특정 도시 관련 유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의 가장 큰 목적은 교육에 있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 활동에 공헌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만한 내용을 그 수집 대상으로 한다. 수집품을 통한 전시, 출판 활동으로 대학 내 다양한 연구 협업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디자인 아카이브는 디자인 환경, 디자인 직업, 디자인 실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 학생의 연구를 장려하고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는 디자인된 실제 결과물보다는 디자인 과정에 보다 많은 중요도를 부여한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디자인 아카이브는 결과보다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한 기록을 얻고자 한다. 다시 말해,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의 주 관심사는 어떻게 기관과 그 기관의 구조 안에서 개인들이 작업에 참여하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는지, 개별 디자이너가 어떻게 훈련받았고 그 훈련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체계들이 긍정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작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 자료들을 모은다. 디자인 아카이브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직업의 테두리 안에서 더 넓고 흥미롭게 조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록 그들이 보유한 기록들이 영국 디자이너에 관한 것이 아닐지라도 만약 그 자료들을 통해 어떻게 디자이너가 우수한 디자인 결과물을 얻어 낼 수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면 그 모든 자료들은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별 자료만 놓고 보면 '이런 자료들까지 수집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갖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자료를 통해 보다 큰 미래 지향적 그림을 그려내는 일이라는 인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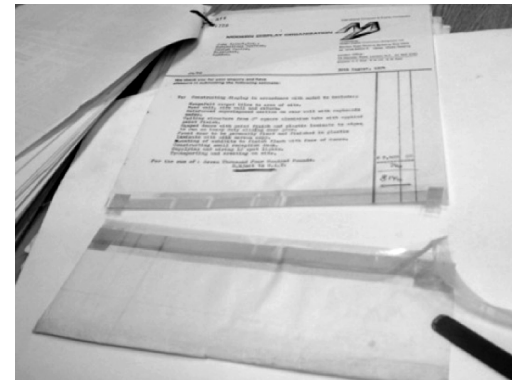
이러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디자인 아카이브에서는 수장품 선정 과정에서 새로운 수집품이 기존 수장품을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검토 기준이 된다.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집품 선정에 대한 인식과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수장 정책과의 유사점이다.

1.6. 수장품의 보존

대부분의 수장품이 종이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 때문에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는 보통 50-60년 많게는 100년이 훨씬 넘은 낡고 오래된 종이 문서들을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존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인협회와 관련된 한 문서는 아래쪽 1/3 부분이 이미 떨어져 나가 임시로 부착해 놓은 상태다.

떨어져 나간 문서의 일부를 일반 접착제로 붙이면 접착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약해지므로 접착 부위를 다시 잃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아무 접착제나 사용하면 접착제가 오랜 시간 건조되는 과정에서 문서 원본에 상처와 접착 자국을 남기게 되는데 이러한 원본 훼손을 막는 보존 처리가 주요 관심이다.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가 종이 문서 보존을 위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밀가루 전분을 물에 희석하여 만든 흰색 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밀가루 반죽은 종이 보존과 책



[그림 6] 훼손된 문서 보존(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그림 7] 가벼운 수장품 보존(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그림 8] 수장품 보존 도구(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그림 9] 종이 수장품 보존 풀(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경첩 보수에 많이 사용된다. 이 과정은 철저하게 수작업에 의존해야 하는 시간이 걸리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응어리짐을 없애기 위해 염색이나 표백되지 않은 천연 섬유를 이용해 사후 처리하기를 하기도 한다. 풀은 항상 냉장 보관해야 하며 일주일 이상 상온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상온에 노출되거나 다량의 풀을 제작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풀 입자가 응집되어 종이 문서의 보강 부위를 손상시키거나 제대로 된 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소량 제작하여 사용한다.

1.7. 주요 디자인 단체의 아카이브 대행

1.7.1. 이코그라다(ICOGRADA: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Graphic Design

Associations)

이코그라다는 1963년 런던에서 설립되어 전 세계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 집단으로 활동해왔다. 강력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발적 단체로서 이코그라다는 사회와 산업을 위한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을 증진해 왔다. 이코그라다 아카이브는 전 세계로부터 모인 1,500여 종의 포스터와 도서 그리고 관리, 행정, 교육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을 수장하고 있다.

소장 품목 직선 길이 145.11미터에 해당하는 약 800여 권의 도서와 잡지를 포함한 15,000여 종의 포스터, 협회 활동과 운영에 관련된 관련 서류 일체
ICO/1 관리, 운영 자료, ICO/2 도서, ICO/3 포스터, ICO/4 그래픽 작업

1.7.2. ICSID(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익시드는 산업디자이너의 지위를 증진할 목적으로 1957년 런던에서 설립된 단체로 교육을 통한 산업 디자인의 기준을 마련하고 전 세계적으로 산업디자이너들 사이의 협업을 권장하는 활동을 해왔다. 1960년대까지 익시드는 전 세계 30개국으로부터의 40여 개 이상의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고 있었다. 익시드의 아카이브는 정치적 범위와 경제적 불공정을 넘어 산업디자인과 디자이너를 대변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해온 이 국제기구의 적극성, 열정, 영향력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장하고 있다.

소장 품목 직선 길이 50미터에 해당하는 관리 파일, 인쇄 자료, 간행물 및 사진 등
ICD/1 기구 조항, ICD/2 국제 회의, ICD/3 총회, ICD/4 의원 회의, ICD/5 교차디자인, ICD/6 워킹그룹, ICD/7 세미나, ICD/8 이사회 조직, ICD/9 ICSID 간행물, ICD/10 회원 국가, ICD/11 수상, ICD/12 국제 기구, ICD/13 교육

1.8. 주요 개인 아카이브

1.8.1. 프레데릭 헨리온 아카이브(Frederick Henri Kay Henrion Archive)

독일 뉘른베르크 출신 헨리온(1914-1990)은 1933년 파리에서 테드 레비(Ted Levy)로부터



[그림 10] 이코그라다 자료를 위한 수장 공간(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그림 11] 익시드 자료를 위한 수장 공간(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텍스타일 디자인을 익히고 폴 콜린(Paul Colin) 포스터 디자인 학교에서 공부한 후 런던으로 이주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 군사정보부의 디자이너로 일했다. 이후 자신의 디자인회사를 열어 테이트와 라일, 국립 극장, KLM 네덜란드항공 등 영국과 국제 기업들의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일을 했다. 이 아카이브는 헨리온의 전체 경력, 원본 작업, 사진, 포장, 그래픽 디자인 등과 더불어 산업디자인, 활판 인쇄술, 광고 등에 관한 Henrion의 라이브러리를 포함한다. 그는 산업디자인협회(디자인협회의 전신)와 이코그라다와 같은 디자인 관련 단체에 밀접하게 관여했다.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과 런던 인쇄대학(London College of Printing)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교육자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했고, 산업디자이너학회(Chartered Society of Designers)의 전신을 포함한 전문 디자인 단체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 수장 범위 1936년부터 1990년까지(일부 자료는 아직 박스에 보관 중)
- 규모 직선 길이 23미터의 아카이브, 35미터의 도서관
- 소장 품목 FHK/1 프로젝트 상자, FHK/2 예술 작품과 사진, FHK/3 슬라이드 모음, FHK/4 사적 문서들, FHK/5 도서

1.9. 보유 아카이브 목록

1.9.1. 디자인협회 아카이브(Design Council Archive)

1944년에 설립된 산업디자인협회(1972년 디자인협회로 개명, 1994년 대대적인 구조 변화)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 중 주요 아카이브이다.

협회의 모든 측면에 관련된 자료, 특히 국제 전시, 출판, 교육, 공모전 등을 통한 디자인 산업의 홍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1.9.2. 브라이튼 예술대학 아카이브(Brighton School of Art Archive)

1859년 로열 파빌리온(The Royal Pavilion) 산하에 개설되어 1877년 자신의 건물 그랜드 퍼레이드로의 이전, 후일 브라이튼 종합 대학으로 성장하게 된 대학의 오랜 역사를 담은 아카이브이다. 교수, 학생, 직원들의 역사적 활동들을 기록한 문서, 사진, 교육 커리큘럼을 비롯한 수많은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다.

1.9.3. 보킨스 아카이브(Vokins Archive)

보킨스 백화점(The Vokins Department Store)은 1997년 문을 닫기 전까지 100년 동안 브라이튼 소매시장의 중심이었다. 이 아카이브는 보킨스 백화점의 직원, 판매, 창고, 백화점 발전과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범위의 사진, 문서 기록, 신문 기사, 회계장부, 기획서, 서신류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아카이브는 소매와 소비의 측면에서 도시와 지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4. 앨리슨 세틀 아카이브(Alison Settle Archive)

패션의 세계, 의복 제조, 디자인 홍보와 여성의 실무 직업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서류들을 보유하고 있다. 앨리슨 세틀(1891-1980)은 여성 인권 분야에 상당한 양의 작품을 남긴 저널리스트였다. 보그지(Vogue)의 편집자이기도 했고, 예술산업협회(the Council for Art & Industry)와 산업디자인협회(The Council of Industrial Design)에 공헌하기도 했다. 그녀의 아카이브는 패션, 섬유, 디자인 홍보, 중산층 문제, 여성 전문 실무 등에 대한 깊은 안목과 통찰력을 담은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1.9.5. 한스 아놀드 로드홀츠 아카이브(Hans Arnold Rothholz Archive)

드레스덴(Dresden)에서 태어나 1933년 영국으로 이주하여 레이만 스쿨(Reimann School)에서 상업예술(Commercial Art and Display Design)을 공부한 로드홀츠(1919-2000)는 사고예방을 위한 왕립회(ROSPA: 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포스터, 우체국 포스터 등을 남겼다. 또한 그는 1940년대 웹블리 운동장(Wembley



[그림 12] 앨리슨 세틀(사진 출처: 브라이튼 대학교 아카이브 제공)

Stadium), 1951년 영국 페스티벌(The Festival of Britain) 등을 위한 홍보 디자인을 담당했다. 이 아카이브는 BEA, BOAC, 신발 회사 슐렌디다(Splendida), 제이 아서 랭크 필름 스튜디오(J Arthur Rank Film Studios), 셸(Shell), 이아이 에이아이 항공(EI AI Airlines) 등 클라이언트와 교환한 서신류도 보유하고 있다. 로드홀쯔는 또한 음식점 베이컨 앤 달걀(The Bacon & Egg Restaurants), 그릴 앤 치즈(The Grill & Cheese)의 체인점을 위한 벽화와 그래픽을 맡기도 했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그는 윈저 앤 뉴튼 예술포장(Winsor & Newton Art Packaging)의 리브랜딩 작업, 웰콤(Wellcome)을 위한 기업 아이덴티티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로드홀쯔는 타이포그래픽 디자이너협회(The Society of Typographic Designers)와 산업예술가협회(The Society of Industrial Artists)의 회원이었다.

1.9.6. 에드윈 제이 엠블레튼 아카이브(Edwin J Embleton Archive)

엠블튼(1907-2000)은 오드햄스 신문사(Odham's Press) 디자이너, 2차 세계대전 동안 정보부(The Ministry of Information) 출판부서 책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아카이브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작된 80여 종의 잡지, 전단 등 주로 영문으로 만들어진, 그러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아라비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도 제작된 정보부 선전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1.9.7. 윌리 드 마조 아카이브(Willy de Majo Archive)

마조(1917-1993)는 20세기 국제 디자인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코그라다의 설립자인 그의 아카이브는 2003년 브라이튼 대학교로 유치되었고, 전문직으로서 그의 노력과 디자이너를 돕기 위한 지원을 담은 육성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마조의 아카이브는 디자인 연구 분야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디자이너와 디자이너를 대변하는 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전후(戰後) 디자인 실무, 클라이언트, 비용, 작업 흐름 등이 그것이다.

1.9.8. 제임스 가드너 아카이브(James Gardner 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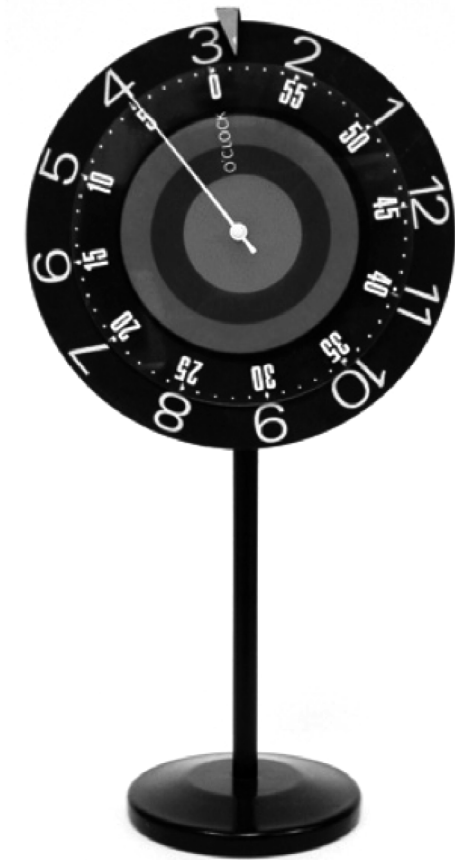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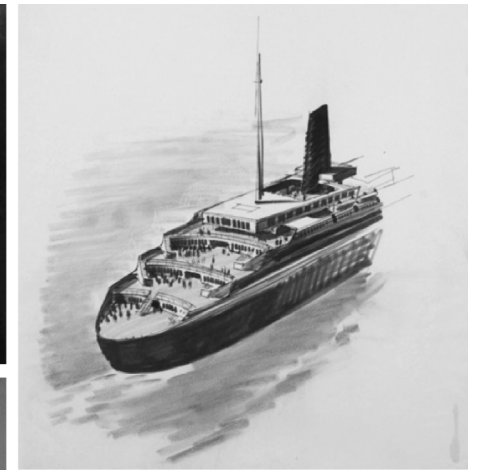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으로부터 선박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제임스 가드너 아카이브는 개인 디자이너의 작업, 사업 서신류, 개인 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초기 기획과 드로잉이 1958년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세계박람회, 1993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톨레란스 박물관(The Museum of Tolerance)에서 선보인 바 있다.

1.9.9. 폴 클락 아카이브(Paul Clark Archive)

1940년생인 클락은 영국 팝 문화와 함께 디자인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인물이다. 이 아카이브는 이 시기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서류에서부터 머그컵과 시계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종의 수장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수장품은 산업디자인협회의 작업이 관료주의를 보완하고 전후 영국 디자인의 명성을 넓힌 측면에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1.9.10. 요셉 엠버튼 아카이브(Joseph Emberton Archive)

엠버튼(1889-1956)은 웹블리(Wembley)에 지어진 대영제국전시장(The British Empire Exhibition, 전시: 1924, 1925) 건물, 1931년 번햄온크로우치(Burnham-on-Crouch)에



[그림 13] 폴 클락 아카이브(사진 출처: 브라이튼 대학교 아카이브 제공)

지어진 왕립 코린티안 요트 클럽(The Royal Corinthian Yacht Club) 건물, 그리고 1935년부터 1939년에 지어진 블랙풀 플레주어 비치(Blackpool Pleasure Beach)를 통해 모던 디자인을 소개한 가장 저명한 영국 건축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아카이브는 건축 도면, 광고, 사진, 서신류, 개인 문서, 그리고 엠버튼의 건축에 대한 믿음을 둘러싼 당시의 논쟁과 그의 명성을 다룬 신문 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11. 마얌 아카이브(W H Mayall Archive)

마얌(1923-1998)은 항공 산업의 제도사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1959년 후일 그가 선임 관리자로 일했던 산업디자인협회에 가입했다. 그는 강의 활동과 함께 글을 쓰고 책을 집필하며 산업 분야와 협력을 통해 국제회의와 전시를 유치하는 일을 했다. 이 아카이브는 그의 작업의 모든 측면을 반영하는 문서들과 그가 은퇴 후 맡았던 디자인 교육 활동을 포함한다. 협회 업무에 대한 좌절감과 그가 가졌던 대안적 시각을 드러내는 상당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9.12. 앤소니 프로쇼그 아카이브(Anthony Froshaug Archive)

프로쇼그(1920-1984)는 1930년대에 런던의 센트럴세인트마틴 예술공예학교(The Central School of Arts & Crafts)에서 공부했고, 진보적인 유럽 타이포그래픽 디자이너 얀 치홀트(Jan Tschichold)의 영향을 받아 타이포그래퍼와 전시디자이너로서 프리랜스 인쇄업을 시작했다. 프로쇼그는 센트럴세인트마틴 예술공예학교, 울름초형대학(The Hochschule fur Gestaltung Ulm), 왕립예술학교(The Royal College of Art), 와트포드 예술학교(Watford School of Art)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프로쇼그의 아카이브는 그의 작업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그의 교육법을 보여주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1.9.13. 나타샤 크롤 아카이브(Natasha Kroll 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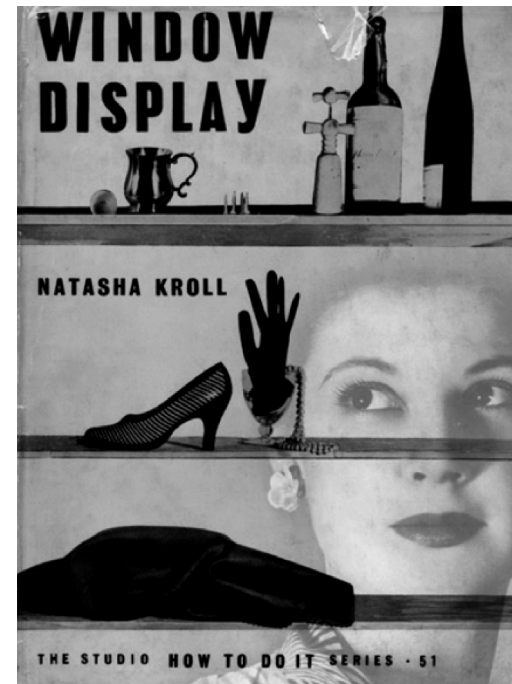
크롤(1912-2004)은 베를린 레이만 학교(The Reimann School in Berlin)에서 전시디자인을 공부하고 1936년 이 학교가 런던으로 이주할 때 선생으로 합류했다. 1942년 크롤은 심슨 회사(Simpson(Piccadilly) Ltd.) 전시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전시 철학은 유럽 모더니즘에 뿌리를 두었고 요셉 엠버튼(Joseph Emberton)에 의해 디자인된 새로운 건축에 영향받았다. 1956년 크롤은 BBC 프로덕션 디자인 부서에 합류하여 시대극 분야에 특화된 작업을 했다.

1.9.14. 버나드 스코트랜더 아카이브(Bernard Schottlander Archive)

스코트랜더(1924-1999)는 공공조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용접공과 금속판공으로 경력을 쌓기 시작한 그는 리드예술학교(Leeds School of Art)에서 조각 야간 수업을 들으며, 1949년부터 1951년까지 센트럴세인트마틴 예술공예학교(The Central School of Arts and Crafts)에서 산업디자인을 공부했다. 스코트랜더는 그가 조각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됐던 센트럴세인트마틴에서 용접과 금속작업을 가르쳤다. 사진 포함, 그가 1950년대에 제작한 다양한 산업디자인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1.9.15. 바바라 존스 아카이브(Barbara Jones Archive)

존스(1912-1978)는 왕립예술학교(The Royal College of Art)에서 벽화 장식을 공부했고,



[그림 14] 바바라 존스 아카이브(사진 출처: 브라이튼 대학교 아카이브 제공)



[그림 15] 초상화: 여성 디자이너
(사진 출처: 브라이튼 대학교
아카이브 제공)

1930년대의 전성기 아티스트들과 관계 맺었다. 다양한 선적(船積) 회사들, 호텔, 레스토랑이 그녀에게 작업을 의뢰했고, 많은 주요 전시에 참여했다. 제임스 가드너(James Gardner)가 그녀에게 1940년대 후반 수년 동안 산업디자인협회(The Council of Industrial Design)의 디자인 박람회, 1951년 영국디자인페스티벌(The Festival of Britain), 1962년 런던 커먼웰스협회(The Commonwealth Institute London) 등에 관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바바라 존스는 그래픽 디자이너, 글 작가이자 동시에 방송인이기도 했던 대중 예술가였다. 1951년에 화이트채플 미술관(The Whitechapel Art Gallery)에서 열린 그녀의 전시 '검은 눈과 레몬에이드(Black Eyes and Lemonade)'와 같은 해 발행된 그녀의 책 '단순한 예술(The Unsophisticated Arts)'은 영국 대중문화에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10. 연구 활동과 전시

디자인 아카이브는 디자인 관련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많은 영국 내외 컨퍼런스 논문, 기사, 도서 등의 출판물은 대학에 자리 잡은 디자인 아카이브가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었다. 실레로 브라이튼 예술대학 학부는 2001년 RAE(Research Assessment Exercise) 5등급을 달성하고 2008년 예술 디자인 부문 연구의 65%가 '세계 최고' 또는 '국제적으로 탁월한' 수준의 범위로 분류되었다. 디자인 아카이브 직원들은 대학의 정책 결정에 참가하고, 예술 디자인 관련 부문의 자문 자격을 가진 국제 수준의 교수진으로서 대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디자인 아카이브는 V&A 박물관, 런던 디자인 박물관 등을 포함한 영국내 관련 아카이브와 함께 연구 협력 관계를 효과적 유지하고 있다.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 자료실 업무의 25%는 광범위한 연구 지원 활동이기도 하다.

1.10.1. 초상화: 여성 디자이너(Portraits: Female Designers)

이 전시에 소개된 초상화들은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디자인협회(CoID: The Council of Industrial Design) 아카이브의 일부이다. 이 협회는 영국 산업 내 디자인 개선을 위해 1944년 설립되었다. 이 사진들은 산업디자인 제품을 보는 특별한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소규모 독립 디자인회사와 대규모 디자인회사들로부터 촬영된 것들이다. 전후(戰後) 여성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또 타인으로부터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이들 사진으로부터 들여다볼 수 있다.

1.10.2. 영국 페스티벌 60주년 기념(60th Anniversary of the Festival of Britain)

영국 디자인 페스티벌과 관련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활동들이 디자인 아카이브에 수장되었다. 77개의 관련 파일과 사우스뱅크에 설치된 다양한 행사 건물을 담은 400여 장의 사진들로 구성된 디자인 아카이브, 헨리온 아카이브에 보관 중인 헨리온이 책임을 맡았던 전시 기록 사진, 마조 아카이브에 보관 중인 북아일랜드에서 있었던 페스티벌과 관련된 자료 등이 그것이다.

1.10.3. 맥도날드 '맥스' 길: 디지털 자원(MacDonald 'Max' Gill: A Digital Resource)

미술가, 지도 제작자, 벽화 예술가, 건축가, 레터링 전문가, 그래픽 예술가로서 길(1884-1947)의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총 14부문의 회화, 판화, 장비들, 기타 사물과 크고 작은 자료들로 구성된

전시이다. 섹션1의 자료들은 길의 후손과 브라이언 예술대학 직원이 함께 참여했던 2011년 길의 전시에 소개되었다. 이 전시와 더불어 브라이언 대학교에서 심포지엄이 함께 마련되었다.

1.10.4. 아카이빙 디자인 단체(Archiving Design Organisations)

2011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예술디자인사학회(The Design History Society of Arts)의 후원으로 '디자인 아카이브 세미나(A Design Archives Seminar)'가 브라이언 대학교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디자인 아카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3가지 주요 아카이브인 디자인협회 아카이브(The Design Council), 이코그라다 아카이브(ICOGRADA: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Graphic Design Associations), 익시드 아카이브(ICSID: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에 관한 것이었다.

1.10.5. 해리엇 앳킨슨 박사(Faculty Fellow Dr Harriet Atkinson)

예술인문학 연구협회(AHRC: Arts & Humanities Research Council)의 후원으로 왕립예술대학(The Royal College of Art)과 V&A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의 디자인사 부서가 연계하여 진행한 해리엇 앳킨슨 박사의 연구 '상상적 복원: 1951년 영국 페스티벌의 디자인'이 제레미 애인슬리(Jeremy Aynsley) 교수와 데이비드 크로울리(David Crowley) 교수의 지도로, 데이비드 몰트리스(David Matless) 교수와 배리 커티스(Barry Curtis) 교수의 심사에 의해 2007년 완성되었다. 해리엇은 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장품들을 바탕으로 『영국 페스티벌: 그 지형과 사람들』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1.10.6. 아카이브 보존(Conserving the Archive)

서파 쿠틸라이넨(Sirpa Kutilainen)의 아카이브 보존과 디지털화 관련 블로그 프로젝트이다. 2002년부터 브라이언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에서 디지털 이미지와 미디어 분야 업무를 맡은 그녀는 2010년 캄버웰(Camberwell)의 런던예술대학 보존 과정(Conservation Course at the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에서 PgDip(Postgraduate Diploma)를 종이와 디지털 자료에 집중하여 진행했다.

1.10.7. 직업으로서 디자인의 지형(Towards an Atlas of the Design Profession 2010/11)

2010년 9월 브라이언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는 리 암스트롱을(Leah Armstrong)을 AHRC로부터 재정 지원받는 첫 번째 박사과정 학생으로 맞았다. 리의 연구 주제는 80여 년을 넘어서는 영국 디자이너의 지형학적 전개와 학제적 풍부함을 탐험하는 것이었다. 영국 디자인의 정체성 지도를 그리는 것과 더불어 디자이너의 실무가 21세기 디자인의 윤곽과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전개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견해로부터 시작한 리의 연구 주제는 디자이너 공인협회(The Chartered Society of Designers)의 멤버십 기록, 영국전문디자이너협회(The Mai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Designers in Britain), 1930년 산업예술가협회(The Society of Industrial Artists)의 설립과 관련된 디자인 아카이브가 가진 자료들을 살피는 것이었다. 연구 목적은 이들 데이터를 살핌으로써 멤버십의 패턴, 지역, 학제, 성별에 의한 지형이 어떻게 디자인 실무의 통계 변화를 만들었는지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한편, 지역과 시간을 넘어서는 디자이너와 그들의 지위 사이에서 디자인 스튜디오와 디자인회사를 상대로 또 그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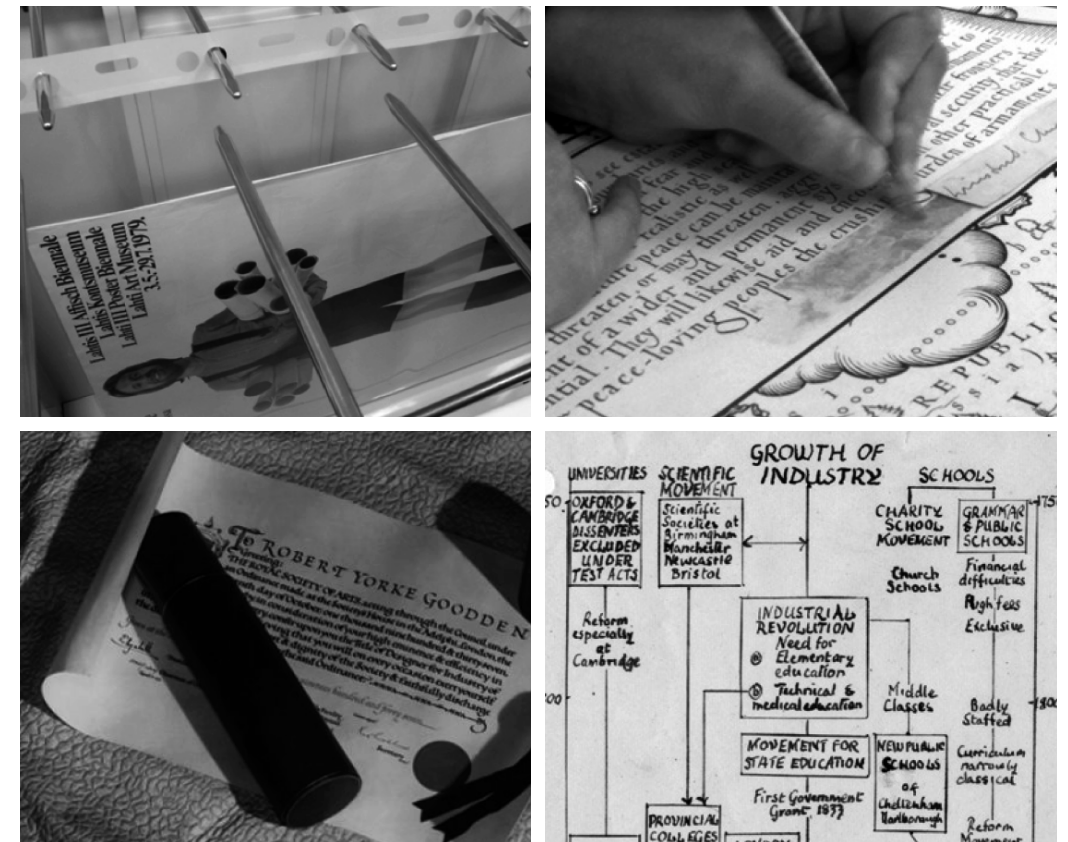
위치한 영국 내 지역에 존재하는 교육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성을 탐험하는 것이다.

1.10.8. 여기를 보세요!(Look-Here! Project 2011)

1951년 영국 페스티벌에 관련된 일련의 사진 이미지들을 디자인협회 아카이브 시각 예술 데이터 서비스(VADS: The Visual Arts Data Service)의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를 보세요!(Look-Here!)' 프로젝트는 예술 교육 부문의 기술과 전략의 발전, 산업디자인협회에 의해 주도된 공식 페스티벌 행정 기록 문서 디지털화를 위해 VADS가 공동 기획하고 JISC가 후원했다.

1.10.9. 교육 활동을 위한 JISC 디지털 이미지(JISC Digital Images for Education Project 2010)

브라이언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는 2010년 여름부터 미래 교육을 위해 제공될 500여 시간의 영상과 5만 6천여 장의 사진이 포함된, 영국 고등교육을 위해 무료로 제공될 수 있는 독보적인 온라인 도서관 기획에 참여했다. 무엇보다 강조할 점은 이 기획이 지역 역사를 담은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영국 역사와 세계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디자인



[그림 16] 아카이브 보존(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아카이브는 2,300여 점의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다.

1.10.10. 가브리엘 쿠리-브라이튼 사진 비엔날레(Gabriel Kuri - Brighton Photo Biennial 2006)

디자인협회 아카이브(The Design Council Archive)가 보관하고 있는 1956년부터 제작된 쿠리의 국내 식탁 용기를 담은 순수 흑백 사진들이 브라이튼 대학교의 입주예술가 프로젝트에 의해 런던 디자인 센터(The Design Centre, London)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쿠리의 작업들은 티한 점 없이 깨끗하고 청결한 전후(戰後) 디자인협회의 사진 미학뿐만 아니라 모더니티와 그 열정을 표현한다.

1.10.11. 소비 문화(Cultures of Consumption 2005)

2005년 디자인 아카이브의 부 큐레이터 레슬리 워트워스(Lesley Whitworth)는 ‘소비 문화’라는 주제로 다학제 간 연구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5년 동안의 이 도전적인 프로그램은 ESRC와 AHRC라는 영국 연구협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글로벌 맥락의 소비를 연구하기 위해 사회과학, 예술, 그리고 인문학을 넘나드는 선구적인 결과를 남겼다. 개인적 연구에 더해 많은 관련 인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련의 공개, 비공개 포럼을 가졌다.

1.10.12. 에어 월드(Air World-Vitra Design Museum, Germany 2004/6)

이 순회 전시는 디자인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헨리온 아카이브를 포함하여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Vitra Design Museum)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여행 가방 태그, 일정표 등 비행기 여행 전성기를 대표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었는데, 설득력 있고 선견지명 있는 기획으로 평가받았다. 전시 카탈로그는 대략 250쪽, 400컷 이상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영어와 독일어로 제작되었는데, 여행용 휴대가방에 담을 수 있는 크기를 고려한 것이다. 이 카탈로그는 산소 호흡기의 역사, 비행사 아이덴티티 디자인, 승무원 유니폼 패션, 여행 포스터 디자인, 그리고 오늘날 건축, 디자인, 아트에 미친 항공술의 역할 등 전시 주제에 관련된 모두 9가지의 글을 담았다.

1.10.13. 조각과 디자인(Sculpture and Design 2005)

영국 학계로부터 지원받은 ‘조각과 디자인’이라는 컨퍼런스가 디자인 아카이브의 큐레이터 캐서린 모리아티(Catherine Moriarty)와 러프버러 대학(Loughborough University)의 길리안 화이트리(Gillian Whiteley)에 의해 기획되었다. 이 행사는 다양한 학자들과 함께 교육, 저자성, 제작, 전시, 소비의 측면에서 조각과 디자인, 그리고 조각가와 디자이너의 관계를 탐험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1.10.14. 사진과 상품문화(The Photograph and Commodity Culture 2004)

19세기 사진술의 발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사진은 직접적으로 상품문화의 발전과 소비과정에 관련되어 왔다.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와 사진포럼(Photoforum)의 주관으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사진이라는 매체가 소비 사회의 진화와 그 의미 순환에 중심적으로 개입해 온 다양한 방식, 그리고 동시에 사진 그 자체가 상품화되어 온 내용에 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1.10.15. 사물의 황홀경(Ecstasy of Things, Winterthur, Switzerland 2004)

디자인 아카이브는 산업사회를 위한 또는 산업사회에 의한 대량 생산 상품과 관련한 사진 모음이라는 범유럽(pan-European) 프로젝트에 영국 내 몇몇 단체와 함께 공동 초대되었다. 서파 쿠틸라이넨(Sirpa Kutilainen)은 디자인 아카이브가 디자인 사업을 위해 또는 지방 정부에 중요한 자원이 된 사례들을 이 프로젝트에 제공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보일만한 수집품들을 아카이브로부터 선택하여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만들어 전시와 출판을 위해 스위스로 보냈다. 디자인 아카이브에서 보관하고 있는 많은 양의 사진이 이 전시를 통해 소개되었다.

1.10.16. 브라이튼 사진 비엔날레(Brighton Photo Biennial 2003)

디자인협회(The Design Council) 아카이브와 산업디자인협회(The Council of Industrial Design) 아카이브에 직접 관련된 일련의 사진 카드들을 2003년 열린 브라이튼 사진 비엔날레를 위한 출판에 제공했다.

1.10.17. 영국을 디자인하다: 전후 사회의 시각 경험(Designing Britain 1945-1975: Visual Experience of Post-war Society 2002)

디자인 아카이브의 주요 프로젝트를 위해 JISC로부터의 £132,000 후원으로 아카이브에 기반한 8가지의 온라인 학습과 교육 모듈이 개발되었다. 예술과 디자인 분야의 강사와 전문가가 디자인 아카이브와 기타 보조 수집 자료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작업에 저자로 투입되었다. 디자인 아카이브로부터의 다양한 자료들이 예술과 디자인 고등교육 단체의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 학습 도구로 쓰이기 위해 취사, 선택되고 디지털화되었다.

1.10.18. 내부와 외부(Indoors and Out: Bernard Schottlander 2008)

헨리무어재단(The Henry Moore Institute), 리드 대학(Leeds University),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가 참여한 버나드 스킷랜더(Bernard Schottlanders, 1924-1999) 회고전은 그의 조각과 디자인에 동시에 내포된 영역을 들여다보고 그의 가구와 소품 디자인에서 드러나는 우아한 형태미가 어떻게 그의 공공 조각에 반영되었는지를 드러냈다. 전후 관장의 고층 사무실 건물을 위해 제작된 조각 작품은 실내 가구로부터 진화된 또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이 전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과 조각을 선보이고 이 두 가지 영역의 작품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1960년대 후반 이상적 공공 조각 논쟁에 참여하고, 1972년 피터 스투이브산트(Peter Stuyvesants)의 도시 조각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버나드의 역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버나드는 전쟁 발발과 동시에 영국으로 이주한 독일계 유대인 조각가로 명성을 얻었고, 디자이너로도 활동했다.

1.10.19. 1960년대(Les Sixties, Brighton Museum & Art Gallery 1997)

1962년부터 1973년의 영국과 프랑스 예술, 사회를 들여다보는 이 전시는 디자인협회(Design Council) 아카이브에 소장된 1971년 파리 장식미술 박물관에서 열린 <형태에 대한 상상> 전 관련 사진들을 소재로 최고의 영국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보부(The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와 산업디자인협회(The Council of Industrial Design)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 전시를 통해 디자인 기관에 의한 팝 문화 흡수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1.11. 교육


대학원 과정 중 아키비스트 훈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디자인사를 공부하는 학생이 디자인 아카이브 팀과 함께 아카이브의 업무를 경험한 뒤 관련 분야 학위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카이브 업무와 관련한 실습 훈련이지 공식 학위 프로그램은 아니다.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훈련 과정으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아카이브를 공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 다루는 내용 또한 유연하게 결정한다. 반면, 박사과정 학생과의 협력은 보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박사과정 학생들이 아키비스트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 아키비스트들이 박사과정 학생을 감독하고 지도할 권한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아키비스트들은 이런 지도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 브라이튼 대학교의 박사과정 학생뿐만 아니라 타 박물관 디자이너, 타 대학 박사과정 학생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런 구체적 연구 활동은 디자인 아카이브의 연구 결과물로 직접 이어지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디자인 아카이브의 연구 활동을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활용한 연구의 양과 질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디자인 아카이브는 또한 학생뿐 아니라 현장의 실무 디자이너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아카이브가 디자이너에게 현재의 이슈와 아카이브를 연결하게 하는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다. 현장과의 이런 연결은 자연스럽게 아카이브에 순환적인 도움이 된다.

1.12. 예산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는 대학에 소속된 연구 기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예산 측면에서 대학의 주 역할은 연구 인력과 연구 시설, 공간 지원 정도이다. 대학은 디자인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인력의 급여와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개별 아카이브를 설립, 관리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외부로부터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직원이 받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REF(The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와 같은 외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연구 지원금으로도 충당한다. 그 때문에 특정 아카이브의 신설이나 유지 관련된 활동, 그리고 개별 연구 활동 비용은 작성된 초기 제안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에 외부 지원금 신청을 시도한다. 예를 들면, 디지털 자료 전환 작업은 GIS(C) (Genral Insurance Standard Council)에서 지원을 받고, 협업 박사과정 프로젝트들은 ARHC(Art & Humanities Research Council)의 지원을 받는다. 디자인 아카이브는 연구 지원금을 통해 한시적 아카이브 직원 총원이나 연구비용 등을 해결한다. 때때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HEFCE(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의 입찰에 참가하기도 한다. HEFCE는 대학 갤러리와 박물관을 위한 일정 정부 예산을 운영하는데, 전국적으로 연구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30여 개 박물관과 갤러리를 후원하는 명망 있는 단체이다. 이처럼 브라이튼 대학교 디자인 아카이브는 활동적 연구원들이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유치하는 크고 작은 지원금에 상당히 의존한다. 정부로부터 오는 지원금은 교육부 고등교육 부서(HE: Higher Education Sector)에서 대학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디자인 아카이브는 대학의 전체 예산 계획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배분 받는다.

1.13. 장단기 계획

- 연구원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도 디자인 아카이브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으로 디자인 아카이브는 대외 홍보를 위해 보유 중인 모든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 제공하는 노력을 한다.
- 브라이튼 대학교의 모든 학생은 자유롭게 디자인 아카이브 수집품에 접근할 수 있지만, 아카이브의 활용 사례와 경험을 보다 많은 학생과 잠재적 연구자에게 전파하기 위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 디자인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의 교육적 역할을 좇아 연구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은다. 이런 방법으로 보유 중인 아카이브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점점 더 많은 연구 활동을 지속하면서 디자인 아카이브 역시 그 양과 질 면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 디자인 아카이브가 지역, 국가를 넘어선 국제 수준의 연구를 생산하는 대학 내 디자인 아카이브로서 본연의 임무를 지속하는 데 힘쓴다. 

2. 빅토리아 앤 알버트(V&A) 박물관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Archive of Art and Design in Victoria & Albert Museum)

2.1. 소개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이하 V&A 박물관))의 '예술디자인 아카이브(Archive of Art and Design)'는 V&A 박물관의 늘어나는 수장품을 수용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으며, 예술과 디자인 관련 작품의 수집, 보관 외에 수장품에 대한 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집 범위는 유럽과 미국 작가들의 건축 도면, 산업 디자인, 의상, 조각가의 스케치 등 예술가와 디자이너 개인의 작품에서부터 기업의 디자인 제품 생산 관련 홍보물, 제품 주문 서류, 서신류, 일반 기록, 회계 장부, 사진류 등으로 방대하다. 총 8만 여장의 드로잉을 포함한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모든 수장품은 3백여 가지의 수장 분류 항목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는데, 특히 20세기와 21세기 영국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가장 큰 목적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예술가와 디자이너에게 작품 근원이 되는 밑그림들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 과정에서 가졌을 생각과 디자인 과정을 재현하는 것이다.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South Kensington)에 자리 잡고 있는 박물관 본관 건물과는 별도로 켄싱턴 올림피아역 근처, 브리드 하우스(Blythe House)에 자리하고 있는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비트릭스 포터 컬렉션(The Beatrix Potter Collection)', 'V&A 아카이브 인스티튜셔널(The V&A Archive Institutional)', 'V&A 공연예술 아카이브(The V&A Theatre and Performance Archive)'와 더불어 V&A 박물관이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 중 하나이다.

'V&A 박물관'은 단지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오늘날 가장 훌륭한 예술품과 디자인 제품, 그리고 시각 문화 관련 작품, 기록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박물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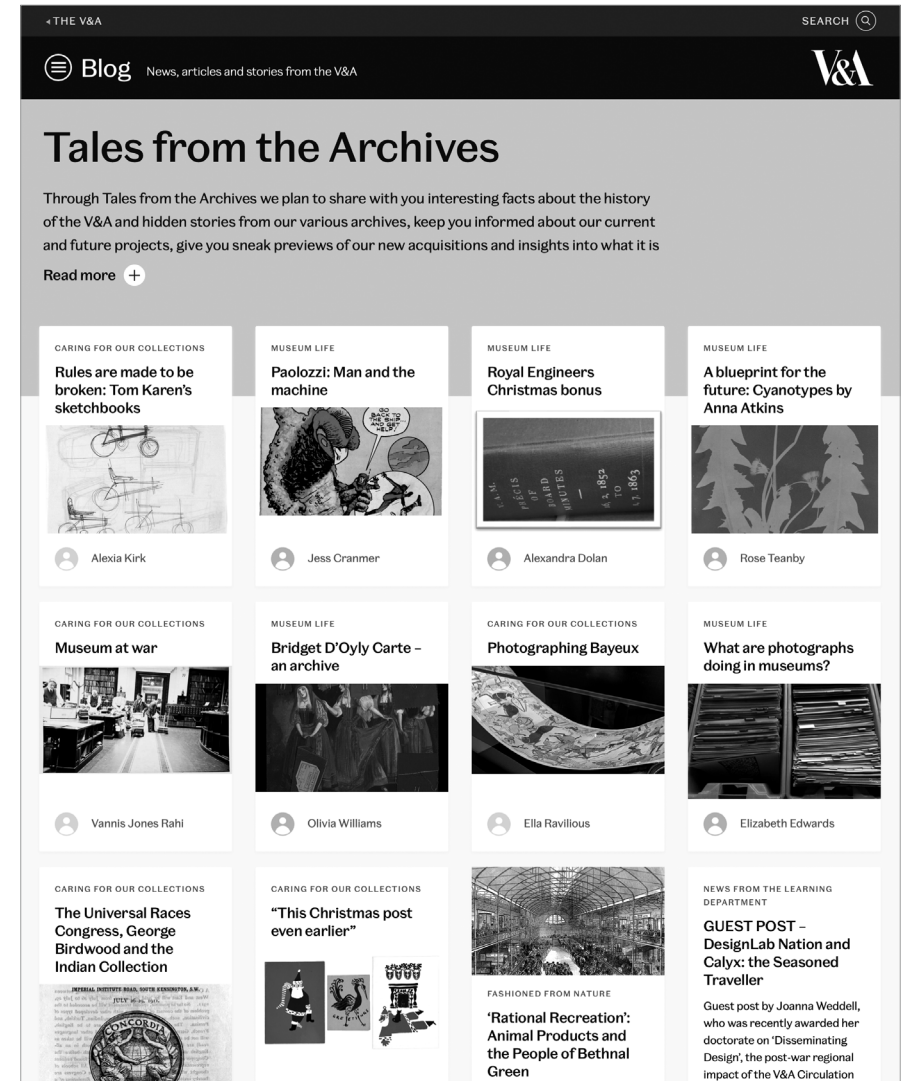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또한 수장품이 현대 예술과 디자인의 움직임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2001년 판화, 회화, 드로잉 부서를 갖춘 'V&A 박물관 아카이브', '국립 예술 도서관 NAL(The National Art Library)', 그리고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총 3가지 단체 및 부서에 '워드 앤 이미지 부서 WID(Word & Image Department)'를 공동 설립함으로써 2백만 종 이상의 폭넓은 수장품과 자료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대다수 수장품은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운영 관리된다. 예를 들어, 박물관 내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장품이 지속적으로 관객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단순히 수장과 보관의 기능을 넘어 박물관 전시와 프로그램에 공헌하도록 한다.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잠재적 예술, 디자인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원천이 되고 있으며, 많은 홍보 경로를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활동을 전개한다.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장품들은 'V&A 박물관'의 다른 아카이브들이 보유한 수장품들과 또 다른 특색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박물관 아카이브에서 작품이나 유물들을

수집하는 반면,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특정 예술가 또는 디자이너의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 유통의 역사 관련 모든 부가 자료를 수집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영국의 예술 작가, 디자이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가 박물관에 속한 아카이브로서 영국 내 다른 아카이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도서 관리자, 박물관 큐레이터, 그리고 아키비스트들 사이의 입체적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신규 수장품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장점을 보인다.

'V&A 박물관'은 오랜 기간 디자인 역사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온 관련 작품, 기록을 수집, 관리, 전시하는 데 매우 큰 공헌을 했으며, 디자인 실무에 혁신을 가져올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를 끊임없이 주시하며 이를 수장 목록에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7]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블로그(사진 출처: <https://www.vam.ac.uk/blog/tales-archives>)

2.2. 개요

V&A 박물관 아카이브와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어떤 다른 국립 미술관보다 많은 곳에 수장품을 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 대여는 기관들에 의해 기획되는 일시적인 전시가 대상이고, 장기 대여는 대부분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특정 수장품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나 지역이 그 대상이 된다.

2.3. 설립 배경

1970년대 1970년대 영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실질적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술과 디자인을 비롯한 영국적 문화유산에 대해 재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술과 디자인 역사 교육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교육 기관에서 시작되는데 고등교육을 위한 자료로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V&A 박물관은 이미 상당수의 도서관 필사본, 예술품과 텍스타일 수장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1978년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로이 스트롱 경(Sir Roy Strong)이 박물관의 디렉터로 있던 당시 '국립 예술 도서관 NAL(National Art Library)의 일부로서, 그리고 박물관 아카이브의 보조 부서로서 박물관에 이미 수집된 자료들을 제품 생산, 마케팅, 홍보 관련 영국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큐(Kew)에 자리 잡고 있었다.

1980대 설립 이후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은행 건물로 사용하던 '브리드 하우스(Blythe House)'라는 거대한 빌딩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과학박물관(Science Museum)',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그리고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V&A Art and Design Archive)'가 공동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1979년 당시 건물 매입은 정부가 글라스고로 은행 이전을 명령하면서 £6.5million의 예산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국립 예술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가 '글과 이미지(WID, Word & Image Department)'라는 부서를 중심으로 하나의 유기적 관계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2.4. 수장 시설

'V&A 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장품 보관 수장고에는 거대한 선반들이 바닥에 전달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여유 공간을 두고 배열되어 있으며, 최적의 수장품 보관을 위해 내용보다는 수장품의 형태와 형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관되고 있다. 수장고 위치, 보관 형식에 따라 습도, 온도 등 수장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각 선반은 다양한 종류의 수장품이 섞여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인은 카탈로그를 통해 수장 목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일정한 절차를 통해 원하는 수장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수장고 입구에 마련된 자료실을 통해 수장품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얻을 수 있다. 지하 수장고에는 공기 정화 장치가 24시간 365일 가동된다. 수장고가 있는 건물은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중 기후와 일조량 변화에 따라 온도 조절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2.5. 수장품 선정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수장품 선정 결정, 절차는 박물관 전체 수장 정책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수장품의 대부분이 특정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일상 삶으로부터 남겨진 수많은 작은 물품들이기 때문에 수장품 규모와 형식 면에서 박물관 아카이브와는 다른 양상을 띈다.

2.5.1. 수장품 선정 방식과 절차

수장품은 또한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입수되는데 예를 들어, 선물, 유산, 증여, 세금 납부, 교환, 구매 등의 방식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내부의 회의에 따른 의사 결정으로 수장 품목과 여부를 결정한다. 선임 아키비스트의 동의를 거쳐 '글과 이미지 부서(Word and Image Department)'의 부서장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수장품이 내부 계획에 의해 결정될 때는 선정 제안서 작성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 제안서를 통해 특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아카이브 설립, 운영을 위한 기금을 신청하기도 한다. 제한된 연간 예산으로 인해 개인, 공공 기관, 자선단체, 세금, 기부 재단 등을 통한 자원 확보는 수장품 선정과 확보 과정에서 그 아카이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5.2. 수장품 선정 우선 순위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장품 선정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같은 종류의 아카이브가 여러 곳에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에 습득된 수장품들과 이들 아카이브가 자연스럽게 증식되도록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드로잉 영역에서 현대의 사례들을 모으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의 수집은 가구, 섬유, 도예, 금속 공예와 같은 V&A 박물관의 다른 수집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간과 예산의 현실성과 박물관 아카이브와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어떤 거대한 부피의 수장물도 수집하지 않는다. 예술과 디자인에 관련된 중요한 인물의 경력 자료, 예술과 디자인 비즈니스 관련 자료, 디자이너의 디자인 과정을 명확히 알게 하는 자료, 그리고 현대 예술과 디자인 연구에 필요한 자료 등에 중점을 두어 수집한다.

- 현재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를 보충하고 서로 다른 아카이브들 사이의 간격을 채울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도예 작품, 남성복, 스테인드글라스 등.
- 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이끌고 디자인 결과뿐만 아니라 디자인 과정을 대중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수장품.
- 국내 디자인 역사와 디자인 산업에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들.
- 전통적 범위에서 벗어난 디자인 활동의 영역들. 즉 기존 인쇄된 수집품들의 강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

— 디자인 과정을 잘 설명하고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3D 모델들.

2.5.3. 저작권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가 수집하는 모든 수장품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다. 하나의 단일 품목에 대해서도 이 과정은 복잡한 작업이지만 한 덩어리의 아카이브의 경우 다양한 단일 품목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지난한 일이다. 특히 직접 소유권을 행사하기 원하는 기부자와의 관계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아카이브 초기 단계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5.4. 수장품의 범위

수장품 다수는 갤러리에 전시되지 않을 만한, 그러나 디자인 또는 디자인 비즈니스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들인데, 주로 20세기의 디자이너 또는 19, 20, 21세기 거쳐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 온 디자인 사업가 그리고 기업들에 관련된 자료들이다. 17세기로부터 남겨진 유물들은 대학 도서관이나 다른 아카이브들에 의해 이미 대부분 보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경력,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통한 비즈니스 역사와 관련된 포괄적 기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까지 작업하고 있는 또는 최근에 은퇴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남긴 모든 것들이 수집 대상이다.

2.5.5. 수장품의 구성

소수 또는 수천 개의 수장품들로 구성된 수백여 개의 독립된 아카이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아카이브는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 즉 디자인, 스케치, 주문서, 회계 장부, 서신, 사진, 홍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장품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다.

-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 도서 일러스트레이션(Book Illustration)
- 도예와 유리 공예(Ceramics and Glass)
- 현대 미술과 디자인(Contemporary Art and Design)
- 전시 디자인(Exhibition Design)
- 패션(Fashion)



[그림 18] 브리드 하우스 주 건물(사진 출처: V&A 제공)

[그림 19] 브리드 하우스 보조 건물(사진 출처: V&A 제공)

[그림 20] 브리드 하우스 주 건물(2012, 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그림 21]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수장고(2012, 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 순수 예술(Fine Arts)
- 가구 디자인(Furniture Design)
- 그래픽 디자인(Graphic Design)
- 금속 공예(은 장식류)(Metalwork, Silver and Jewellery)
-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 Design)
- 섬유 공예(Textile Design)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주요 아카이브는 다음과 같다.

- 영국 예술 카운슬(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 비바 백화점(Biba Department Store)
- 디자이너 루시엔과 로빈 데이(Lucienne and Robin Day, Designers)
- 패션 사진가 존 프렌치(John French, Fashion Photographer)
-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 에일린 레이(Eileen Gray, Architect and Interior Designer)
- 가구 제작사 힐 앤 선(Heal & Son Ltd., Furniture Manufacturers and Retailers)
- 크라지 캣 20세기 대중문화 아카이브(Krazy Kat Archive of Twentieth Century Popular Culture, Eduardo Paolozzi's Collection)
-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사 제임스 파웰 앤 선(James Powell & Sons Ltd, Stained Glass Manufacturers)

— 의상디자인 회사 더 하우스 오브 워스(The House of Worth, Paris, Couture Fi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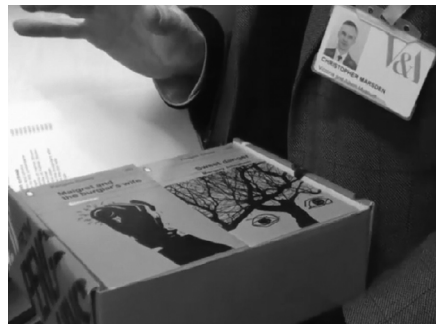
그 밖에 광고, 포장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등의 인쇄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¹

2.5.6. 수장품의 온라인 목록화 사업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설립 이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수장품 목록을 대중이 쉽게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이다. 이 작업은 1990년대 국립 예술 도서관 목록에 처음 정보를 올리는 일을 시작으로 매우 점진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2012년경 ‘Group-level Description’ 또는 ‘Collection-level Descriptions’이라 불리는 일반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기초 길잡이 시스템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도서관 목록을 이용하는 방법과 ‘Encoded Archival Description’이라 불리는 별도의 아카이브 체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안했다. 이어 아카이브의 데이터베이스를 V&A 박물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작업을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통합된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아카이브 접근 체계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2.5.7. 수장품 사례

- 크리스마스 과자 제작자인 ‘톰 스미스(Tom Smith) 아카이브’와 같은 몇몇 특별한 형식의 수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아카이브는 톰 스미스가 제작한 크리스마스 과자의 샘플과 과자 상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픽 디자인을 위해 매우 특별한 수장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또 하나의 특별한 수장으로 ‘로멕 마버(Romek Marber) 아카이브’를 들 수 있다. 펭귄 출판사(Penguin Books)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그는 보관하던 책 표지 디자인, 시리즈물을 담았던 상자 등을 기증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디자인을 통해 수입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가 지속해서 관심 갖는 부분이다.
- 에두아르도 파올로지(Eduardo Paolozzi)의 ‘크라지 캣 20세기 대중문화 아카이브(Krazy Kat Archive of the 20th Century Popular Culture)’는 예술가와 조각가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이 아카이브는 그의 작품들을 모으는 대신 그의 작업에 영감을 주었던 입체 모형, 책 등 그의 작업 과정을 설명하는 기록들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있다.
- ‘힐스 컴퍼니(Company of Heals) 아카이브’는 런던 토트넘 코트로드(Tottenham Court Road)에 있는 한 가구점의 아카이브이다. 75년 동안 이 가구점에서



[그림 23] 로멕 마버 아카이브
[그림 22] 톰 스미스의 크리스마스 과자
(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1 — Archive of Art and Design, V&A, 참고
<https://www.vam.ac.uk/archives/unit/ARC219>

판매해 온 커튼, 소파, 의자 등 가구를 위한 직물 견본집을 보관하고 있는데, 1913년 당시 통용되었던 매우 화려하고 전통적으로 보이는 이 견본집 안의 직물 패턴들이 다시금 유행되고 있는 것을 통해 디자인 아카이브가 디자인의 역사적 흐름을 읽는 도구로 역할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 ‘바나드(Barnards) 아카이브’는 런던의 다소 큰 규모의 은세공 제작 회사에 대한 아카이브이다. 이 아카이브는 매우 상세히 쓰인 손으로 기록된 회계 장부, 편지류, 주문 내역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아카이브를 특별하게 하는 또 하나의 수장품은 종이 위에 그려진 입체 거푸집에 관한 드로잉들이다. 이 거푸집들은 실물로도 보관되어 있는데, 마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쓰였던 것들이다. V&A 박물관의 몇몇 큐레이터들이 이 분야의 수집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는 점은 ‘V&A 아카이브’가 다른 아카이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기도 하다. 실례로 폭파용 수류탄 제작을 위해 사용했던 거푸집 같은 경우 군부대 관련 행사의 디너 테이블에 전시되기도 했다.

2.5.8. 수장품 보존

수장품 보존은 주로 좋은 수장고 확보와 철저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책을 다시 제본하거나 종이를 수리하는 일 등은 특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할 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장품이 전시 공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적의 상태로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금속 수장품의 경우 회색과 갈색으로 이루어진 산성 보호 상자가 구비되어 금속이 산성을 포함한 상자나 카드보드로부터 손상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한다. 대부분의 금속 수장품들은 규격 상자에 보관되지만 앞서 설명한 힐스 컴퍼니의 텍스타일 견본집 같은 특별한 형태나 부피를 가진 수장품, 그리고 입고 당시의 상태에 따라 특별한 상자를 따로 제작하기도 한다. 이 책에 담긴 모든 견본 직물들은 입고 후 책에서 분리되어 많은 비용을 들여 다시 최적의 상태로 복원되었다. 비활성 폴리에스터 비닐의 경우



[그림 24] 에두아르도 파올로지의 크라지 캣 아카이브
[그림 25] 힐스 컴퍼니의 가구를 위한 직물 견본집
[그림 26] 에두아르도 파올로지의 크라지 캣 아카이브
[그림 27] 힐스 컴퍼니의 가구를 위한 직물 견본집
(사진 출처: 연구팀 촬영)

수장품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와 크기로 사진, 드로잉 등 종이 수장품 보관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모든 수장품은 1차 포장되어 2차로 상자에 보관되고 수장품 관리를 위한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2.6. 예산

때때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유입되는 기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연간 예산 대부분은 정부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전체 예산 안에서 배정받고 운영된다. 대체로 매우 한정된 예산은 수장고 공간 확보와 최소한의 인력 운용에 사용된다.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예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WID(Department of Word and Image)의 예산만이 공개된다.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만의 예산 내역을 매뉴얼 리포트에 따로 공개하지도 않는데, 이는 박물관으로부터 유입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 시설 관리비, 기타 비용 등으로 쓰이고,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에서 벌어지는 상당한 양의 작업들이 외부 기부자와 후원자들로부터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은 대부분 대학이나 국립 박물관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아카이브를 위해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 개별 아카이브 별로 자선 단체로부터 수장고 보존에 대한 경비 후원을 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2.7. 정책 결정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정책은 국립 예술 도서관과 V&A 박물관을 아우르는 '글과 이미지' 부서의 선임 디렉터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는 정부 정책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 받는다. 국립 아카이브에서 발행한 '21세기를 위한 아카이브(Archives for the 21st Century)'라는 영국 내 모든 형태의 아카이브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문서가 있기는 하지만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 중앙 정부로부터의 직접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02년경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등에 정부의 지침을 관리해 오던 공기관인 MLA(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를 폐지함에 따라 MLA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국립 아카이브(The National Archives)의 아카이브 부서로 흡수, 이관했다. 국가 차원의 아카이브 관련 업무가 국립 아카이브 업무의 일부가 된 것이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박물관으로서 V&A는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박물관 아카이브 업무 전반에 국립 아카이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포털 웹사이트로 운영되는 '아카이브 허브(Archives Hub)'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2.8. 공공 서비스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브리드 하우스(The Blythe House)에 'V&A 공연예술 아카이브(Theatre & Performance Archive)', 'V&A 박물관 아카이브', 그리고 '비트릭스 포터 컬렉션(The Beatrix Potter Collections)'과 공동 운영하는 열람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열람실은 디자인 역사, 공연예술사와 관련된 참고 서적들을 구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다. V&A 박물관 조직 안에서 국립 예술 도서관과 함께 통합 관리되는 '글과 이미지 부서'의 일부가 됨으로써

방대한 양의 도서를 독립적으로 구비할 필요 없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카이브와 관련 도서, 관련 연구에 직접 영향을 갖는 자료들 위주로 도서관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주요 아카이브 중 하나인 섬유 디자이너 자크린느 그로악(Jacqueline Groag)에 관련된 책이 그 좋은 예이다. 도서관에는 자료를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고, 사진 촬영은 예술과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허락된다. 작은 부분이지만 불필요한 소모품 구입 예산 소모를 피하기 위해 자료 복사는 허락되지 않는다.

2.9. 전시

여러 가지 관리의 이유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V&A 박물관에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장품을 순회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아카이브가 어떤 수장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일반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V&A 박물관에서 기획되는 크고 작은 전시와 행사들에 수장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장품의 일반인 대상 공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패션쇼의 경우 관련 사진과 회계 자료가 함께 공개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수장품으로 구성된 소규모 전시가 열리기도 하는데, 그래픽 디자이너 한스 슈레거(Hans Schleger Archive)의 수장품 전시가 독립된 방으로 기획되기도 했다.

수장품은 국내외 기관들에게 대여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외 어느 곳에서든 연중 언제나 수많은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장품 전시를 볼 수 있다.

파올로지(Paolozzi) 수장고를 V&A 박물관 방문자를 위한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브리드 하우스(Blythe House)의 보완 계획이 추진되기도 했는데, 몇몇 수장품은 그곳에 지속적으로 전시되어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와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수장품 전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데 기여했다. 아카이브 수장품은 일반적으로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영구 전시를 위한 공간에 놓이지는 않는다. 많은 수장품이 종이로 이루어져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시를 위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종이 수장품은 최장 3-6개월 이상은 공개 않고 보통 순환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시 장소, 여건, 주변 환경, 전시 기간 등은 큐레이터, 아키비스트, 그리고 보존 과학 부서의 전문가들에 의해 사전에 매우 면밀하게 검토된다.

2.10. 교육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V&A 박물관의 교육부서와 연계하여 초중고교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영국 페스티벌(The Festival of Britain)' 때 박물관으로 옮겨진 상당수의 수장품을 이용한 강의와 워크숍을 개최해 수익금을 얻기도 했다. 물론 대부분의 교육은 디자인 역사와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에 집중된다. 수장품은 많은 학생의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관련 대학의 특정 학과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아카이브 수장품을 홍보한다. 디자인과 디자인 역사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이 브리드 하우스를 방문하고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가 소개하는 일반 안내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연구에 자극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수장품을 직접 접한다. 큐레이터, 아키비스트들은 서로 밀접하게 협업하며 수장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등 아카이브 관련 연구와 수장품 연구에 집중한다. 이렇듯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박물관의 교육 정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육 활동에 부합하는 통합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11. 연구와 출판

국립 예술 도서관의 도서 목록은 분류번호를 통해 아이템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AAD'로 시작되는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에서 발행된 도서들이 발행 날짜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수장품을 이용한 연구 도서, 그리고 수장품 자체에 대한 도서가 출판, 등록되어 있다.

2.12. 타 기관과의 협업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대영 박물관(The British Museum)을 비롯한 영국 내외의 많은 타 기관들과 효과적인 아카이브 업무를 위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와의 협업을 들 수 있다. 역사 깊은 수장품 보유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아카이브들이 있지만 건축 드로잉 측면에서는 약 100만여 종에 이르는 수집품을 보유한 RIBA에 견줄만한 기관을 찾기 어렵다.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현대 건축 드로잉을 단지 영국 내 작품을 벗어나 글로벌 범위에서 수집하고 있지만, RIBA의 수집품들은 모두 영국 건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한 가지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와 RIBA의 차이점은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가 건축의 예술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수집하는 반면, RIBA는 건축 자체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수집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이다. 이렇듯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다른 기관의 특징과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서로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한다.


2.13. 타 박물관 아카이브와의 차이

대부분의 큐레이터들이 특정 예술가나 디자이너의 최근 작업에 관심을 갖고 일시적인 전시를 목적으로 특정 수량 또는 한 두 점의 작품도 수집 활동을 하는 반면, 아키비스트들은 언제나 그들이 주목하는 특정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수집 활동을 한다. 작품 외에도 사업 기록, 실패한 작업들, 개인의 수집품 등 모든 것을 수집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 아카이브가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는 모든 예술, 디자인 작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면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영국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사진이나 드로잉, 그리고 그것을 제작한 예술가 또는 디자이너가 V&A의 설립 취지, 목적과 부합하는 당위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 수장품이 비록 해외로부터 온 귀중한 자료일지라도 수장, 전시에 충분한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 박물관과 아카이브의 성격, 수장 공간의 제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국 예술과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수집 활동을 한다,

2.14. 타 디자인 아카이브와의 차이

한편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박물관에 속한 예술디자인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박물관의 수장 정책과 수장 품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기반한 지역성을 띄는

디자인 아카이브, 또는 대학 내에 자리 잡은 디자인 아카이브들과 다르다. 영국 내에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디자인 아카이브가 존재하는데, 국가에서 설립, 운영, 지원하는 아카이브가 있는 반면, 개인이 설립한 크고 작은 아카이브들이 있다. 또한 박물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아카이브가 있는 반면, 대학에서 설립 운영하는 아카이브도 상당히 많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아카이브의 경우 연구와 교육에 중점을 둔 자료로 운영되는 반면, 'V&A 예술디자인 아카이브'는 V&A 박물관 아카이브와의 연계 속에서 전문 디자인 산업의 역사와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상당수의 입체 수집품 자료도 함께 수집, 수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디자인 아카이브와 차별된다. 



[그림 28] 런던 디자인 박물관 외관(사진 출처: <https://designmuseum.org>)



[그림 29] 런던 디자인 박물관 내부(사진 출처: <https://designmuseum.org>)

3. 런던 디자인 박물관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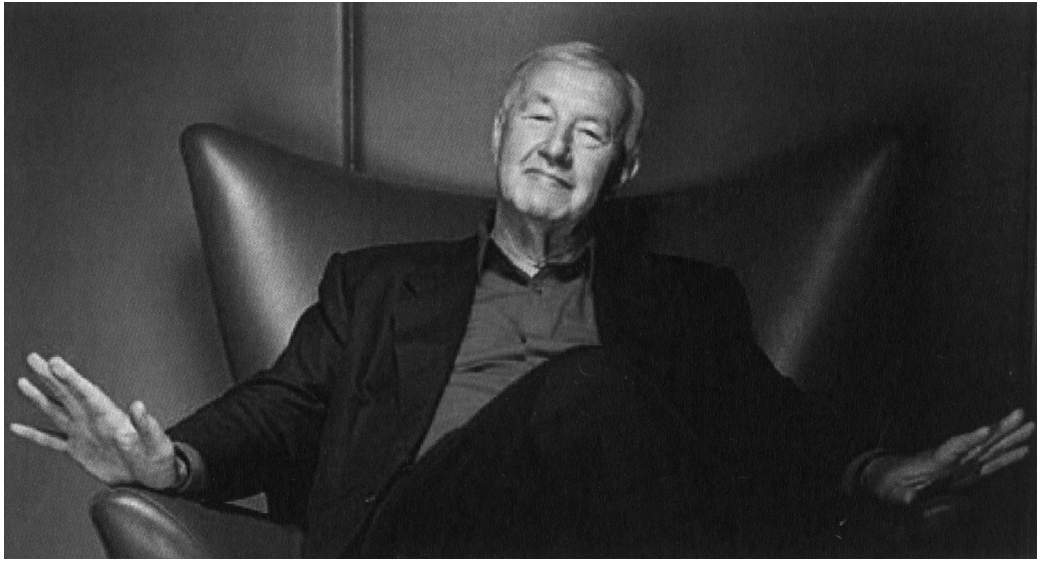
3.1. 소개

런던 디자인 박물관은 더 나은 디자인 없이 더 나은 미래는 다가올 수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디자인을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세상을 더 나은 삶을 위한 곳으로 만드는 모든 측면과 관련된 필수 요소로 본다. 1989년 테렌스 콘란 경(Sir Terence Conran)이 처음 설립한 이래 디자인 박물관은 세계의 우수 디자이너와 건축가를 기념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 도구로서 디자인의 증진에 힘써 왔다. 디자인 박물관은 조나단 아이브(Jonathan Ive)가 애플에 입사하기 전에 영국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전시했고, 푸마가 이브스 베하(Yves Behar)의 획기적 패키지 디자인을 영국에서 선보이기 위해 선택한 장소였으며,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첫 개인전을 가진 장소이기도 했다. 설립 이래 약 900만 명(2016년 재개관 이후 2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았고, 수많은 전시를 개최함과 더불어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과 현대 디자인에 중요한 기록이

될 수집품들을 쌓아 왔다. 이 모든 활동들은 디자인 박물관이 현대 디자인의 확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게 했다. 디자인 박물관은 전시와 수집품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책과 인터넷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며 논쟁을 장려한다. 학생들에게 디자인 박물관은 그 자체로 즐기는 공간이고 스스로 즐기는 활동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미래 디자인을 이끈다. 2016년 뉴 디자인 박물관(New Design Museum) 프로젝트를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갈 디자인 박물관의 미래를 위해 켄싱턴에 있는 (전)커몬웰스 회관으로 이전했다. 1960년대에 지어진 이 근대식 건물은 2급 별종 건축물로 존 파슨(John Pawson)이라는 건축가에 의해 신중하게 다시 정비되어 기존보다 3배 넓은 전시, 교육, 그리고 영구적인 수장을 위한 아카이브 공간을 제공한다.

3.2. 설립 배경

1980년 좋은 디자인이 가져다주는 문화적, 상업적 혜택에 대한 민간의 더 나은 이해 증진을 위해 테렌스 콘란 경의 기부에 의해서 콘란 교육 재단(The Conran



[그림 30] 테렌스 콘란 경(사진 출처: 런던 디자인 박물관 제공)

- 1981년 Foundation, Educational Charity)이 설립되었다. 이 재단의 첫 번째 사업,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중요한 기반이 된 보일러 하우스 프로젝트(Boilerhouse Project)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용되지 않고 있던 V&A 박물관(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의 지하 보일러실을 전시장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이 공간은 학생, 디자이너, 그리고 대중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고 토론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고, 스티븐 배일리(Stephen Bayley)의 큐레이팅으로 소니 디자인(Sony Design), 케네스 그랜지(Kenneth Grange),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디터 램스(Dieter Rams)의 회고전 등 매우 신선하고 창의적인 전시로 주목을 받았다.
- 1987년 보일러 하우스 프로젝트는 멤피스(Memphis) 가구전을 비롯한 문화, 예술, 산업 관련 많은 이슈를 일으키며 1987년까지 지속되었고, 타워 브릿지(Tower Bridge) 근처 버틀러스 워프(Butlers Wharf)의 현대식 건물로 옮길 때까지 디자인 박물관 설립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 1989년 콘란 재단의 후원으로 1989년 마침내 1940년대 바나나 숙성 창고로 지어져 1950년대 한국 전쟁을 위한 군수품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에 디자인 박물관이 설립된다.
- 1990년 개관 후 대중에게 선보인 첫 전시가 있었다. 포르쉐(Porsche), 알파 로메오(Alpha Romeo), 찰스 임스와 레이 임스(Charles & Ray Eames) 등이 함께 한 이 전시를 시작으로 당시 세계적으로 유래 없던 디자인만을 위한 첫 박물관이 런던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 2007년 디자인 박물관의 전신, 보일러 하우스 오픈 25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시대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 제품 선정을 요청받은 25인의 디자이너가

초대되었다. 이들 디자이너는 과거 25년 동안에 생산된 디자인 제품 중 가장 상징적인 25가지를 선정했다. 그리고 3월 29일에 테렌스 콘란,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 재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 폴 스미스(Paul Smith)를 포함한 디자인 전시가 개최되었다.

- 2008년 New Design Museum 기획에 착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과 더불어 모든 관련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새 건물에 마련될 도서관, 수장고 등 아카이브 관련 시설을 위해 보유 중인 수집품 분류를 체계화하고 모든 수장품 보관에 대한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 2012년 디자인 박물관이 전시와 관련 작품 수집을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수장 공간 한계, 수장품의 양과 규모, 관리 인력 부족 등 모든 면에서 아직 아카이브라고 불리울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2016년을 목표로 수장품 재정비, 신규 수장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무엇보다도 기금모집운동과 홍보가 활발히 벌어졌다.
- 2016년 2016년 11월 24일 런던 서부 켄싱턴(Kensington)에 있는 (전)커먼웰스 인스티튜트(Commonwealth Institute) 건물로 이전 완료했다.

3.3. 전시

3.3.1. 정기 전시

- 올해의 디자인(Design of the Year)
올해의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를 통틀어 건축, 디지털, 패션, 가구, 그래픽, 제품, 운송 등 분야에서 그 해에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디자인을 선정한다. 디자이너 일스 크라우포드(Ilse Crawford), 헬라 존게리어스(Hella Jongerius), 조지 라코베스쿠 경(Sir George Jacobescu), 헨리엠타 톰슨(Henrietta Thompson), 이브게니 레베데브(Evgeny Lebedev)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매년 각 분야별 수상과 더불어 그중 1명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 브릿 보험의 올해의 디자인(Brit Insurance Designs of the Year)
영국의 주요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 분야별 수상작들을 해마다 전시한다. 2011년에는 접이식 전기 플러그를 디자인한 한국인 최민규가 수상자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 입주 디자이너(Designers in Residence) 전
매년 입주 디자이너를 모집해 디자인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 결과를 전시한다.

3.3.2. 비정기 전시

- 2012년 — 적정 제품 80종(Products Fitness 80) 전
만약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와 에너지를 20% 덜 사용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1주년을 맞아 무지(Muji)는 디자인

박물관에서 무엇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가에 관한 생각을 담은 제품 전시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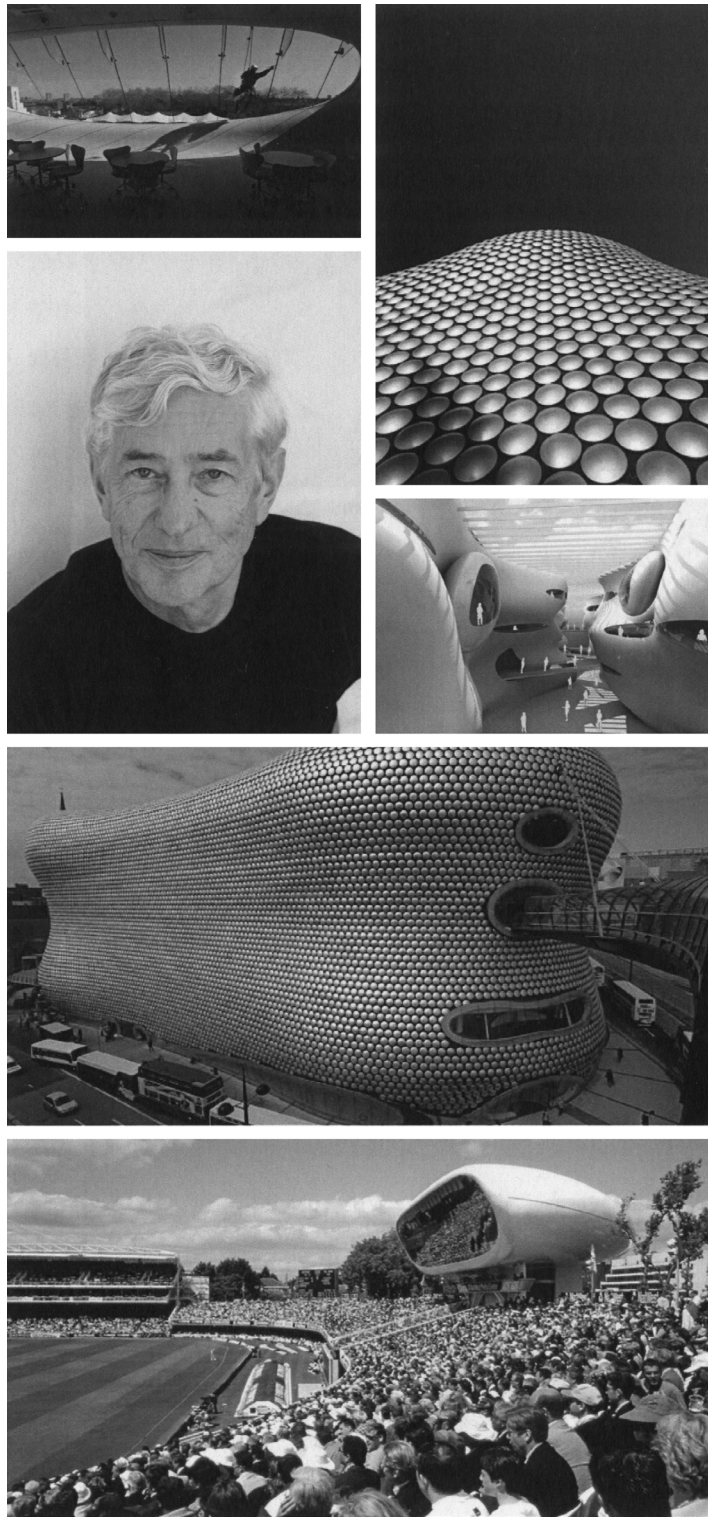
- 크리스찬 루브탱(Christian Louboutin) 전
크리스찬 루브탱의 20년 작업과 그의 영감을 회고하는 중요한 전시로, 그의 신발디자인의 예술가적 기교와 연극적 요소를 선보였다.
-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The Way We Live Now), 테렌스 콘란(Terence Conran) 전
콘란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디자이너 중 한 사람으로 식당 경영자이자 동시에 제품 판매자이다. 이 전시는 그의 작품, 그가 디자이너로서 받은 영감, 그리고 영국 현대 디자인에 미친 그의 영향을 선보였다.
- 이것이 디자인이다(This is Design) 전
BT(British Telecommunications)의 기부로 소장하게 된 영국의 빨간색 공중전화 부스, 데이비드 멜러(David Mellor)가 디자인한 교통 신호 조명 등 영국 모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수장품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모던 디자인이 어떻게 우리 삶과 현대 문화를 형성했는지를 선보였다.
- 케네스 그랜지(Kenneth Grange)의 영국 모던 만들기(Making Britain Modern)
케네스 그랜지는 영국의 선구적 제품 디자이너다. 50년이 넘는 그의 디자인 인생은 코닥 카메라(Kodak Cameras), 도시 간 125 열차의 실루엣(The Silhouette for the Intercity 125 Train), 켄우드 믹서(Kenwood Food Mixers), 파커 만년필(Parker Pens), 그리고 런던 택시(Black Cab) 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의 일상을 형성한 가장 상징적이고 익숙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 Wim 크로웰(Wim Crowel) 전
그래픽 디자인의 신화, 더치 그래픽 디자인의 전설, Wim 크로웰의 첫 번째 영국 전시이다. 그의 디자인 철학을 통해 디자이너 인생 60여 년을 들여다보고 그를 상징하는 포스터, 인쇄물, 타이포그래피를 직접 경험하도록 기획되었다.
- 재규어 E 시리즈(E-Type Jaguar) 전
1961년식 재규어 E-Type 모델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디자인 박물관 앞 템스 강가에서 전시되었다.
- 패션 드로잉(Drawing Fashion) 전
100년의 패션 디자인 역사, 정신, 스타일을 촉발한 150여 점이 넘는 패션 디자인 관련 드로잉, 잡지, 영상 자료, 사진이 공개되었다.
- 존 파슨(John Pawson)의 명료한 공간(Plain Space) 전
뉴욕 타임즈가 모던 미니멀리스트 건축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존 파슨의 전시에서 디자인 박물관 설립 이래 가장 큰 설치물이 관련 자료, 사진들과 함께 공개되었다.
- 아프리카 도시와 지속가능한 미래(Urban Africa and Sustainable Futures)

2011년

2010년



[그림 31] 디터 램스와 그의 디자인 박물관 전시(사진 출처: 런던 디자인 박물관 제공)



[그림 32] 얀 카플릭과 그의 디자인(사진 출처: 런던 디자인 박물관 제공)

2009년

- 데이비드 애드재(David Adjaye)의 사진 여행으로부터 남겨진 아프리카 삶의 오늘을 촬영한 독특한 사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제품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 덜한 것이 더한 것이다(Less and More), 디터 램스(Dieter Rams) 전 이브닝 스탠다드(Evening Standard)가 모던 미니멀리즘의 성지라고 극찬한 전설적인 독일 제품 디자이너 디터 램스의 전시. 20세기 과학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 디자이너 중 하나인 그의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이에 담긴 정신을 선보였다.
 - 그래픽 디자인과 건축(Graphic Design and Architecture),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 전 아름답고 정교한 모델, 스케치, 사진으로 구성된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회사 중 하나인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전시였다.
 - 하비에르 마리스칼(Javier Mariscal)의 삶을 그리다(Drawing Life) 전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디자이너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스페인 마리스칼의 괴짜 카툰 캐릭터와 가구 디자인으로부터 놀라운 인테리어, 그래픽 디자인까지 다양한 작업이 전시되었다.
 - 얀 카플릭(Jan Kaplick), 미래의 건축(Architect of the Future) 전 체코 건축가 얀 카플릭은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두드러진 작품들을 남겼다. 데얀 수직(Deyan Sudjic)의 기획으로 카플릭의 경험과 독특한 미래주의적 시각, 그리고 건축에의 영향력을 선보였다.
 - 지극히 현대적인(Super Contemporary) 런던을 위한 15가지 작품이 선보였다. 폴 스미스(Paul Smith)의 바니 빈스(Bunny Bins),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에 설치된 로스 필립(Ross Phillips)의 'Head to Toe Booth' 등 과거, 현재, 미래 런던 디자인의 정신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 폴 스미스(Paul Smith) 전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의 138가지 가방 디자인을 박물관 아트리움 공간에서 선보였다.
 - 디자인 도시, 세상을 바꾼 8가지 순간(Design Cities, Eight Moments That Changed the World) 전 창의성의 측면에서 본 7개 주요 도시의 현대 디자인 이야기. 이 전시는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크리스토퍼 드레서(Christopher Dresser), 론 아라드(Ron Arad), 아돌프 루스(Adolf Loos), 요셉 호프만(Josef Hoffman), 르 코르뷔제(Le Corbusier), 마셀 브루어(Marcel Breuer), 찰스 임스와 레이 임스(Charles and Ray Eames),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시로 구라마타(Shiro Kuramata), 자하 하디드(Zaha Hadid), 리처드 사퍼(Richard Sapper) 등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 2008년
- 산업 설비를 보라(See Industrial Facility) 전 팀 워커(Tim Walker)의 'Under a Fiver'를 포함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2007년

- 알란 알드리지(Alan Aldridge) 전
-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 집으로부터 도시로(From the House to the City) 전
73세의 영국 주요 건축가이자 2007년 프릿커(Pritzker Prize) 건축 부문에서 수상한 국제 건축계에 높은 명망을 받는 리처드 로저스와 그의 작품을 선보였다.
- 장 프루브(Jean Prouvé) 전
전직 너트 공장 근로자이자 실내 옷장 장식과 고급 예술 갤러리를 선보였던 세련된 프랑스 가구 디자이너 장 프루브(1901-1984)의 전시이다. 테이트 모던(Tate Modern)과의 연계로 그곳에서 열린 메종 트로피칼(Maison Tropicale) 전과 입장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매튜 윌리엄슨(Matthew Williamson)의 패션 10년 전
매튜 윌리엄슨은 영국 패션 산업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1997년 학교 졸업 후 자신의 스튜디오를 연 그는 어느덧 패션계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마돈나, 기네스 팰트로(Gwyneth Paltrow), 시에나 밀러(Sienna Miller) 같은 유명 인사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푸치(Pucci)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 이 전시는 그의 대표 디자인과 독특한 패턴 사용, 프린트 기법, 컬러 사용 등 작업 이면의 과정을 선보였다.
- 친근한 불꽃(Friendly Fire) 전
조나단 반브룩(Jonathan Barnbrook)은 지난 20년 동안 영국의 가장 혁신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선구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그는 기업 문화와 소비주의에 관한 작업을 통해 강력히 발언하며 상업적, 비상업적 측면 모두를 정치적 역설로 풀어냈다. 이 전시는 1990년대 반브룩의 초기 순수 타이포그래피와 실험적 모션 그래픽으로부터 반기업 광고감시단체와 함께한 작품도 선보였다. 반브룩 스튜디오의 가장 선구적인 영역인 서체디자인을 포함하여 폭넓은 작업을 엿볼 수 있었다.
-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건축과 디자인(Architecture and Design) 전
2004년 자하 하디드는 신시네티(Cincinnati)의 로젠탈 현대예술센터(Rosenthal Centre for Contemporary Art) 건축으로 프릿커 상을 수상했고 싱가포르, 이스탄불 프로젝트, 중국 오페라하우스, 로마 박물관, 두바이 고층빌딩 등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2007년 하디드는 독일에 완공한 BMW 자동차 공장, 패이노 과학센터(The Phaeno Science Centre)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로부터 Stirling Prize(건축가 제임스 스텐링(James Stirling)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축 상)를 수상했다. 두 건축 모두 단일 형태 안에 거장의 위엄을 담아내는 그녀의 기개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 전시는 영국에서 열린 그녀의 첫 번째 대규모 전시일뿐 아니라 디자인 박물관이 여는 역대 가장 큰 개인전이다. 디자인 박물관은 그녀의 최근작들에 초점을 두고 전시장 두 개 층 모두를 전시 공간으로 할당했다.
- 25인 전
디자인 박물관의 전신, 보일러 하우스 오픈 2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그림 33] 조나단 반브룩과 그의 디자인 박물관 전시(사진 출처: 런던 디자인 박물관 제공)

위해 25인의 디자이너를 초대하여 과거 25년 동안에 생산된 이 시대 가장 상징적인 디자인 제품 25점을 선보였다. 마텐 바스(Maarten Baas), 마리오 베리니(Mario Bellini), 로난 앤 에르완 부룰렉(Ronan and Erwan Bouroullec), 테렌스 콘란(Terence Conran), 마탈리 크라셋(Matali Crasset), 일스 크라우포드(Ilse Crawford),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 스테파노 지오바노니(Stefano Giovannoni), 콘스탄틴 그르치(Konstantin Grcic), 기타 그슈벤트너(Gitta Gschwendtner), 마트 구익스(Mart Guix), 하이미 아온(Jaime Hayon), 샘 헥트(Sam Hecht), 존 헤거티(John Hegarty), 길 히스(Gill Hicks), 매튜 힐튼(Matthew Hilton), 제임스 어바인(James Irvine), 존 마에다(John Maeda), 데이비드 멜러(David Mellor), 재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 디터 램스(Dieter Rams), 리처드 앤 로저스(Richard and Rogers), 리처드 세이모어(Richard Seymour), 딕 파월(Dick Powell), 폴 스미스(Paul Smith), 데이안 수드직(Deyan Sudjic) 등의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전

더 타임즈(The Times)와 더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로부터 ‘생존하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중 가장 훌륭한 디자이너’라는 평가를 받은 이탈리아 디자인의 거장이다. 이 전시는 엘르 데코레이션(Elle Decoration)으로부터 ‘놓쳐서는 안 될 회고전(An Unmissable Retrospective)’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 본성의 변형(Translating Nature) 전

루이지 콜라니(Luigi Colani)는 20세기 디자이너 중 가장 개성이 강한 사람 중 하나다. 1928년 베를린에서 태어나 예술학교에서 공부했고, 공기역학을 부전공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특수 제작의 수제 콜라니는 자동차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는 바로크 조각 형식을 개발했다. 이 배경으로 그는 가구와 제품디자인 분야로 옮겨 간다. 1982년부터 일본에서 일하며 캐논 카메라, 소니 헤드폰 등 다른 제품으로부터 변형된 형식을 창조했다.

— 로버트 브라운존(Robert Brownjohn) 전

초기 제임스 본드(James Bond) 영화 타이틀과 롤링 스톤스(Rolling Stones)의 앨범 커버로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 로버트 브라운존은 1960년대의 많은 기억할 만한 이미지들을 남겼다. 글자와 이미지의 병치에 영감을 받은 첨단 유행의 로버트 프레이저 갤러리를 위한 프린트물, ‘골드핑거(Goldfinger)’와 ‘사랑과 함께하는 러시아(Russia With Love)’의 타이틀에서 나타나는 그의 정제된 대담함은 모던시대의 삶에 대한 그의 격렬한 욕구를 반영한다.

2006년

— 알란 플레처(Alan Fletcher) 전

알란 플레처 아카이브 기부금 조성을 위해 기획된 ‘그래픽 디자인 50년’이라는 그의 첫 번째 회고전이다. 알란 플레처(1931-2006)는 영국

그래픽 디자인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1960년대 포브스와 길(Fletcher, Forbes & Gill)과 함께 1970년대 팬타그램의 공동 창업자였다. 그가 디자인 한 로이터 Reuters와 V&A 로고는 여전히 쓰이고 있다. 1994년 이후 그가 패이든 프레스(Phaidon Press)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The Art Book』, 『The Silver Spoon』가 이 출판사 책 디자인의 원형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 마티노 캬퍼(Martino Gamper)의 의자와 만나다 전

버려진 의자 더미를 옆에 쌓아 놓고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의자를 만들어 온 마티노 캬퍼는 존재하는 의자들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그만의 새로운 의자들을 만들어냈다. 의자를 부숨으로써 새로운 재구성을 위한 통찰력을 얻고, 또 부서진 재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창조적 영감을 얻었다. 마치 입체 드로잉처럼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창조된 의자들을 박물관이 소유한 그의 작품들과 함께 선보였다.

2005년

— 가장 아름다운 스위스 책 2005(The Most Beautiful Swiss Books)

2005년 스위스 연방정부가 선정한 올해의 문화 수상 목록에 오른 32가지 책 디자인을 박물관 카페 공간에서 선보였다. 수상작을 알리기 위한 카탈로그 디자인은 스위스 태생 디자이너 로렌트 베너(Laurent Benner)가 맡았는데, 독자가 카탈로그와 함께 스위스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상한 책들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이, 같은 인쇄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독특한 방침은 오늘날 스위스 디자인에 몸담고 있는 디자이너, 인쇄업자, 제본업자, 사진가,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제지회사의 내면과 작업 수준, 그리고 그 깊이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 전시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3.4. 디자인 아카이브

디자인 박물관은 2010년경 본격적으로 아카이빙을 시작했다. 물론 디자인 박물관이 이미 1990년대 초기 모더니즘으로부터 현대의 최신 디자인에 이르는 수 천여 가지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체계적인 보관, 관리, 공개, 활용 측면에서 부족했다. 그러나 디자인 박물관은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전시와 수장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이들을 활용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2016년 이전의 새로운 박물관에 아카이브 공간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수집과 수장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 박물관이 수집한 소장품들은 대부분 디자인 박물관이 기획했던 전시와 관련한 디자이너의 작품 또는 그 기록에 해당하는 자료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대량 생산 시대의 가구, 조명, 지역 산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관련한 디자인 역사의 흔적으로, 모던 시대를 형성해 온 주요 디자인과 그 역사의 기록이다. 디자인 박물관은 21세기 디자인 아카이브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보유 중인 주요 수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이것이 디자인이다(This is Design)’ 전을 기획했고, 아이덴티티, 제조 혁신, 디지털 혁명 그리고 20세기 생활사의 흔적을 내포하는 매우 흔하지 않은 디자인들을 선보였다. 이 전시는 디자인된 제품이 생산과 상용화를 거쳐 현대 문화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설명하는 원형, 예시, 모델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쓰였던 장비들이 함께 전시되어 디자인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박물관의 관심을 잘 나타냈다.

3.5. 교육

3.5.1. 어린이와 가족 교육 프로그램

- 창의성 워크숍
디자인 박물관의 초등부 디자인+창의성 워크숍은 Key Stage 2, 영국 공교육의 초등과정 3학년(만 8세)부터 6학년(만 11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테크놀로지 교육이다. 창의적 제품 선택을 통한 한 시간 동안의 워크숍에서 학생들은 제품을 관찰, 평가하고 그려보며 서로 토론한다.
- 가족 프로그램
디자인 박물관의 모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박물관 입구에서 무료로 가족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도움과 함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창의성을 가져라! 워크숍
5세부터 11세 사이의 새싹 디자이너들을 초대하여 담당 팀원들과 함께 흥미로운 워크숍을 운영한다. 미래 패션 리더나 건축가를 꿈꾸는 모든 어린이가 만족할 만한 풍부하고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디자인 박물관 가족의 날
디자인 박물관의 특별한 가족의 날 워크숍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전시와 놀이를 함께 묶어 제공되는 가족 활동을 통해 디자인 박물관이 즐거움 가득한 가족 놀이 공간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다.

3.5.2.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 제품 평가 워크숍
Key Stage 4, 영국 공교육의 10학년(만 15세)과 11학년(만 16세), 그리고 AS, 12학년(만 17세) 또는 A2 level, 13학년(만 18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제품 평가 워크숍으로 Key Stage 3, 7학년(만 12세)부터 9학년(만 14세)에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독창적인 제품 선택을 통한 한 시간 동안의 실습으로 제품을 직접 다루고, 관찰하고, 그려보며 의논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 최적의 창의성 워크숍
학생의 창의적 기술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 혁신적 워크숍은 디자인 전문 산업의 디자인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전문직 희망 학생을 위한 실습 과정이다.
- 학생 디자인 공모
디자인 박물관은 전문 학교, 학술재단과 함께 디자인 경쟁 공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4세부터 19세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모 프로그램은 영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 또는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1년의 경우, 이 공모를 통해 14세부터 16세 그룹에서 1명의 우승자와 4명의 입상자, 17세부터 19세 그룹에서 1명의 우승자와 6명의 입상자를 선발해 시상했다. 수상자와 작품은 온라인을 통해 공고된다.

3.5.3. 고등교육 프로그램

- BA 프로그램, 디자인 팩토리
디자인 팩토리는 디자인 박물관의 고등교육(HE: Higher Education) 프로그램 중 가장 특별한 것으로 디자인을 전공하는 BA 학생을 위해 패션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건축, 공간 디자인을 경험하게 한다. 디자인 팩토리 프로그램은 디자인 박물관의 전시, 공공 이벤트, 온라인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디자인 교사와 학생이 함께 연구와 창의적 실습을 경험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로부터의 조언, 다른 학교와의 교차 네트워크 형성, 디자인 박물관에서의 전시 등 다양하고 특별한 기회들을 제공한다.
- 디자인 큐레이팅 MA 과정
디자인 박물관과 킹스턴 대학(Kingston University)은 2001년부터 현대 디자인 큐레이팅 MA 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을 박물관 분야와 창의 산업 내에서의 직업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현대 디자인 큐레이팅의 특성, 해석, 마케팅, 경제적 측면을 교육한다. 디자인 박물관의 전시팀과 킹스턴 대학 디자인사 관련자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이 과정은 디자이너, 큐레이터, 디자인 평론가들의 강의, 박물관 방문자와 함께하는 특별한 프로젝트 기획으로 구성된다.

3.5.5. 교육자 대상 프로그램

디자인 박물관은 중고교 디자인, 테크놀로지, 예술과 디자인 분야 교사들의 디자인 전문성 증진을 위해 강의, 세미나, 워크숍을 기획 운영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 기회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다.

3.6. 공공 서비스와 공공 참여 프로그램

역동적인 토론, 늦은 밤 열리는 워크숍 등 디자인 박물관은 그동안 전시를 측면 지원하는 풍부한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해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왔다. 이처럼 디자인 박물관의 공공 활동은 디자인과 건축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준비되는 박물관에서 열리는 모든 전시와 연계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비비엔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리처드 사퍼(Richard Sapper), 로즈 러브그로브(Ross Lovegrove) 등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디자이너들을 해롯(Harrods) 백화점의 도움으로 초대했던 '디자인 아이콘(Design Icons)'이라는 여섯 차례에 걸친 토론이다. 이 토론은 온라인으로 방영되었고 비디오 팟캐스트로 디자인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었다.



[그림 34] BA 프로그램, 디자인 팩토리(사진 출처: 런던 디자인 박물관 제공)

쇼디치 지역회관(Shoreditch Town Hall)에서 있었던 ‘런던 디베이트(London Debate)’ 또한 커다란 공공 논쟁의 장이었다. 패션 디자이너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 건축가 파시드 무사비(Farshid Moussavi), 그리고 작가 야즈민 알리바이 브라운(Yasmin Alibhai Brown)이 연사로 참여한 이 토론의 화두는 “왜 런던이 이렇게 많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전문 디자이너들의 무대일 수 있는가”였다. 디자인 박물관은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런던 건축 페스티벌 등 매년 다수의 페스티벌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런던 건축 페스티벌의 일부로 기획된 예약 없이 누구나 들러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그 좋은 사례이다. 그림쇼 건축(Grimshaw Architects)의 졸리온 브레위스(Jolyon Brewis)와 로저 스텝크 하버와 파트너(Rogers Stirk Harbour+Partners)의 참여, 폴 핀치(Paul Finch)의 후원, 릭키 버데트(Ricky Burdett), 스텝크(Stirk), 피터 비숍(Peter Bishop)이 토론자로 참여한 이 행사는 런던의 미래를 위해 토론하는 매우 성공적인 기획이었다.

런던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스테판 세그마이스터(Stefan Sagmeister)와 샘 헤흐트(Sam Hecht)가 참여한 ‘Design Overtime Late Night’이 기획되기도 했다. 디자인 박물관은 템즈 페스티벌(The Thames Festival)에도 참여해왔는데, 템즈 페스티벌 ‘나이트 카니발(The Thames Festival Night Carnival)’의 기본 계획과 원형을 세우기 위한 팀을 운영해왔다. 12학년부터 16학년을 위한 맞춤형 워크숍을 통해 문화 활동에 대한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문화 올림피아드 론치 워크앤드 페스티벌(The Cultural Olympiad Launch Weekend Festival)’에도 적극 참여했다. 디자인 박물관은 2008년과 2009년에는 ‘주차된 예술(Parked Art)’이라는 공공 예술의 경향과 발전에 대한 하루짜리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매년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있다.

디자인 박물관의 디자인과 건축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지속적 관심은 지역 예술과 환경 분야 공무원, 공공 예술 기획자, 건축가, 예술협회 대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게 했다. 공공의 소통에 대한 디자인 박물관의 폭넓은 관심은 모든 박물관 활동과의 연계 속에 새로운 소통 방식들에 의해 위협받아 온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의 모든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3.7. 출판

콘란 옥토퍼스(Conran Octopus Ltd.), 칼톤 북스(Carlton Books Ltd.)와의 지속적 협업으로 영국의 디자인: 큰 생각, 작은 섬(Design in Britain: Big Ideas Small Island), 세상을 바꾼 50가지 시리즈(Fifty (Cars, Dresses, Shoes, Bags, Chairs, Hats...) That Changed the World),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How to Design a (House, Chair, Light, Typeface...)), 디자인 박물관: 현대 디자인(Design Museum: Contemporary Design), 20세기 디자인 소책자: 20세기의 디자이너(Twentieth Century Design Pocket Edition: Designers of the 20th Century), 디자인 클래식 소책자(Little Book of Design Classics) 등을 출판했다.

3.8. 예산

런던 디자인 박물관은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영국의 미래에 필요한 국가적 영감과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가치적이고 효과적인 행동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재능 있는 디자이너와 건축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교육과 연구를 위한 중요한 터를 마련하며, 실습에 중심을 둔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목표에 공감하는 많은 후원 단체와 개인이 동참한다. 정부에 등록된 공식 자선단체로서 디자인 박물관은 철저하게 개인, 기업, 기부 재단 등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단체로부터 후원받는다. 이러한 자발적 후원과 기부는 디자인 박물관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교육하고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틀을 만들어 주었고 이를 통해 다른 박물관이나 교육 기관과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했다.

디자인 박물관은 연간 예산의 95%를 각종 공적 기금(문화유산 복권 기금(The Heritage Lottery Fund)과 개인 이름으로 운영되는 각종 소규모 기금, 기부와 후원(연간 예산의 33% 이상을 기부 재단, 후원 기금, 후원기업, 기업회원, 그리고 개인회원으로 부터 확보), 입장료 수입(입장료의 1파운드가 공식 기부 수입으로 분류), 판매 수익(박물관 숍, 카페, 출판, 작품 경매로 매년 상당 규모의 수입 발생), 기타 수입(작품 저작권료, 대여료, 대관료, 투자 수익 등), 연회비(활발한 개인 또는 법인 회원 제도 운영)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재정 면에서 정부로부터 상당히 독립된 박물관이다.

3.9. 후원 단체와 회원

기관 후원	브리티시 카운슬(British Council), 문화영상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독일 대사관(German Embassy), 괴테 재단 런던(Goethe-Institut London), 아이에프에이(IFA: International Feltmakers Association), 시섹스(SEACEX: The State Corporation for Spanish Cultural Action Abroad), 스페인 대사관 문화부서(Spanish Embassy Cultural Office)
재단 기금	안도 후원기금(Andor Charitable Trust), 앳킨 재단(The Atkin Foundation), 콘란 재단(The Conran Foundation), 골든 보틀 기금(The Golden Bottle Trust), 존 리온 자선(John Lyon's Charity), 몬드리안 기금(Mondriaan Fund R&S), 코헨 재단(R&S Cohen Foundation), 퓨터러스 단체(Worshipful Company of Pewterers), 1961년 5월 29일 자선 기금(29th May 1961 Charitable Trust), 아놀드 재단(The Arnold Foundation), 브릿 보험 후원 기금(Brit Insurance Charitable Trust), 에란다 재단(The Eranda Foundation), 에스미 페어번 재단(Esmee Fairbairn Foundation), 피튼 기금(The Fitton Trust), 가필드 웨스트튼 재단(The Garfield Weston Foundation), 남성단체 PLC 후원 기금(Man Group PLC Charitable Trust), 필립 앤 아이린 톨 게이저 재단(The Philip and Irene Toll Gage Foundation)
기업 후원	비엠더블류(BMW), 도이치 은행(Deutsche Bank), 막스 앤 스펜서(Marks and Spencer), 무지(Muji), 페로니 나스트로 아주로(Peroni Nastro Azzurro), 푸마(PUMA creative), 브릿 보험(Brit Insurance), 메카노(Meccano),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 니산(Nissan), 줌토벨

회원(기업)

조명(Zumtobel Lighting GmbH)
 바버 오스거비(Barber Osgerby), 바틀 보글 헤거티(Bartle Bogle Hegarty), 콘란 앤 파트너스(Conran & Partners), 에코 스튜디오(Echo Studios), 호간 로벨스 인터네셔널(Hogan Lovells International LLP), 켄우드 일렉트로닉스(Kenwood Electronics UK Ltd.), 놀 인터네셔널(Knoll International), 크바드라트(Kvadrat), 런던 사우스뱅크 대학(London South Bank University), 폴 스미스(Paul Smith Ltd.), 스피치리 버참(Speechly Bircham LLP), 스튜디오 마이어스코프(Studio Myerscough), 알맥스 매너퀸즈 앤 디스플레이 아이템(Almax Mannequins and Display Items), 비에이엠 건설(BAM Construct), 비피터 24(Beefeater 24), 벤 위버 어소시에이츠(Ben Weaver Associates), 벤치마크 나무공작소(Benchmark Woodworking), 브릿 보험(Brit Insurance), 도이치 은행(Deutsche Bank), 프레임스토어(Framestore), 그래픽 쏫트 퍼실리티(Graphic Thought Facility), 마크 앤 크러크(Marks and Clerk), 넥서스 프로덕션(Nexus Productions), 노키아 영국(Nokia UK Ltd.), 패이든 프레스(Phaidon Press), 프록터 앤 갬블 뷰티(Procter & Gamble Prestige Beaut), 푸마(Puma), 레이븐스본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대학(Ravensbourne College of Design and Communication), 병원 클럽(The Hospital Club), 데어포어 프로덕트 디자인(Therefore Product Design), 런던 대중교통(Transport for London), 윈체스터 예술학교(Winchester School of Art)

회원(개인)

개인 회원의 숫자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연회비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5] 커몬웰스 인스티튜트에서 열린 한 전시 오프닝 날의 모습(1962, 사진 출처: 런던 디자인 박물관 제공)



[그림 37] 방치된 커먼웰스 인스티튜트 건물 외부 모습(2002, 사진 출처: 런던 디자인 박물관 제공)



[그림 38] 커먼웰스 인스티튜트 정면 입구, 켈싱턴 하이스트리트와 인접한 방향, 건물로는 접근 불가 (2012, 사진 출처: 런던 디자인 박물관 제공)



[그림 36] 런던 디자인 박물관 이전을 위한 준비 토론회(사진 출처: 런던 디자인 박물관 제공)

3.10. 박물관 이전 과정

박물관의 새로운 중심이 된 켈싱턴 커먼웰스협회(Kensington Commonwealth Institute) 건물 이전 계획안이 2008년 9월 켈싱턴과 첼시 자치구 기획위원회(The Planning Committee of the 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에 제출되었고, 2009년 4월 승인, 8월 일부 수정을 거쳐 공포되었다. 2002년 이후 쓰임새 없이 방치되어 온 이 건물은 건축주의 건물 철거 신청이 자치구로부터 기각 판정받은 후 디자인 박물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로 주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버려지고 쓸모없게 된 옛 런던 랜드마크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켈싱턴 궁, 로열 알버트홀, V&A 박물관, 사이언스 박물관, 왕립예술학교, 임페리얼 칼리지, 서펜타인 미술관이 밀집한 켈싱턴이라는 역사성을 지닌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사건이 되었다. 건축물 리모델링은 건물이 지어질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로드 컨리프(Lord Cunliffe)와 이 건물 첫 구조설계 기술자였던 제임스 서더랜드(James Sutherland)의 조언으로 진행되었다. 4

건물 소재지	The Commonwealth Institute 224-238 Kensington High Street, London, W8 6NQ 홀랜드 파크(Holland Park)와 인접
초기 디자이너 건축 콘셉트	로버트 매튜(Robert Matthew), 존슨 마샬(Johnson Marshall) '공원 안의 천막(Tent in the Park)', 쌍곡선 포물선으로 이루어진 지붕 형태가 특징
착공/완공	1960년/1962년
사용 주체	1962년부터 2001년까지 커먼웰스 인스티튜트가 사용.(커먼웰스 인스티튜트는 1887년 영국 정부가 인도 등 영국의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과 이를 통한 식민지 주민이 받게 될 이익을 홍보하고 본토와 식민지 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설립한 임페리얼 인스티튜트(Imperial Instirue)가 1958년 개명한 단체이다.)
용도	1951년 영국 페스티벌(Festival of Britain)을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 디자인 관련 전시, 영화 및 국제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쓰였던, 1960년대 이래 런던의 랜드마크였다.
대지 면적	약 13,152.2834m ²
건축 면적	약 12,300m ²
건물 지상고	38m
건축물 등급	Grade 2*(예: 로열 알버트 홀(Royal Albert Hall)은 Grade 1) 사우스뱅크(South Bank)에 있는 로열 페스티벌 홀(Royal Festival Hall)에 버금가는 영국의 전후 문화 유산
용도 폐기	2002년

부지 확보 1958년 정부 기관이었던 커몬웰스 인스티튜트(Commonwealth Institute)가 사유재산인 공원의 일부를 홀랜드 에스테이트(The Holland Estate)로부터 £215,000파운드에 999년 동안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논의 (-2007) 새로운 디자인 박물관 공간의 필요성 논의

승인 인가 (2008) 켄싱턴과 첼시 자치구에 건축물 사용 승인 인가

수정 (2009) 수정 기획안 완성

계획 (2010)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뉴 디자인 박물관 홍보 시작, 예산 마련을 위한 캠페인 시작, 디자인 박물관 수집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재분류 시작

홍보 아카이브 인력 총원 계획 수립, 건축 사용 인가부터 리모델링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 기록 시작

재건축 예산 (2011) 80회 생일을 맞은 콘란의 왕립예술학교 졸업식 참석으로 본격 홍보 시작

추정 예산 (2012) 기금 마련 운동 시작

완공 약 £45,000,000

구비 시설 약 £80,000,000

디자이너 2014년

전시 공간, 도서관, 수장고, 교육/공간, 박물관 숭, 카페, 각종 편의 시설

존 파슨(John Pawson)

존 파슨은 30년 동안 빛과 재료의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간결한, 그러나 한편 매우 겸손한 건축 작품을 만들어 왔다. 그는 꾸준하게 개인 주택 작업을 해왔지만 그의 작품은 맨해튼의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매장과 홍콩 캐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 항공을 위한 공항 라운지, 뉴욕 그래머시 공원(Gramercy Park), 이안 슈래거(Ian Schrager)를 위한 콘도미니엄,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London Royal Opera House), 파리 오페라(Opera Bastille) 무대디자인 등 넓은 범위의 공공 건축 또한 포괄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파슨은 색클러 크로싱(The Sackler Crossing), 런던 큐(Kew)의 식물원에 있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도보자를 위한 길을 비롯해 특별히 역사적 지형과 생태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도전과 경험을 축적해왔다.



[그림 39] 커몬웰스 인스티튜트 내부 모습(사진 출처: 홍보용 자료 사진)